

아가씨
(4교)

CJ
E&M

원작: 세라 워터스
각본: 정서경 박찬욱
20141201

CJ E&M

밑줄 쳐진 대사는 일본어입니다.

1. 절 앞마당 (밤)

세로로 [아가씨]라는 제목이 적힌 고서의 표지. 고운 여자 손이 등장해 책을 열자, 묵은 한지에 그려진 수묵담채화 - 어서 나머지가 차오르기만 기다리는 듯 어정쩡해 보이는 상현반달. 그림 속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실사 화면으로 바뀐다. 가느다란 막대기 모양 구름이 달을 찌를 듯이 다가오는 동안, 들리는 음성.

끝단이

(소리)

저-기 제가 모시는 아가씨인데...

하강하는 카메라 - 공중에 무수히 떠서 초파일을 축하하는 각종 등불이 화면에 들어온다. 수박등, 봉황등, 주마등, 방울등, 가마등, 연등....그 아래로는, 오층석탑 주위를 반월형으로 도는 한복 입은 남녀노소. 끝단이 음성 말고는 정적이라, 탑돌이 행사가 무언극으로 보인다.

끝단이

(소리)

부자는 아니어도 이케미치현에서 제일 존경받는 하리家の 영애시죠...

화면 넓어지는 속도에 맞춰 소리도 빠르게 살아난다. 바리와 목탁과 염불, [백팔정진가] 합창도 들리고, 까부는 꼬맹이들 웃음소리도. 만개한 노랑꽃을 잔뜩 단 산수유나무 사이로, 느티떡장수가 호객을 하며 누빈다. 천천히 팬하면 - 잘 다려진 군복 입고 반짝거리는 가족장화까지 신은 일본군 청년장교, 화면 밖 숙희를 보고 있다.

끝단이

(소리)

그런데 지난겨울, 양친께서 뱃놀이하다 한꺼번에 돌아가시고 말았답니다.

저런! 하며 놀라는 장교. 옆에 선 일본 하녀 차림의 끝단이(20대 중반)도 보인다. 귀엽게 생긴 얼굴이지만 붉은 점이 한쪽 뺨을 반이나 되게 덮었다. 장교의 시점으로, 기모노 차림의 숙희가 소개된다. 왁자지껄 분위기 속에 홀로 고독해 보인다. 달을 올려다보며 우아하게 한숨짓는데, 조출하니 귀태가 난다.

끝단이

(소리)

그래서 일본이고 조선이고 영험하다는 절이란 절은 죄 순례중이세요.

부모님 극락행을 기원하시느라요....

장교

아하 -

숙희, 고개 돌려 얼굴 정면을 보여준다. 흰 손수건으로 눈물을 짖어낸다.

끝단이

그런데...순례는 예서 그쳐야할까 봐요, 아직 스무 곳이나 남았는데...

장교

왜지?

끝단이

역시 이 미개한 고장엔 오는 게 아녘나봐요, 지갑을 도둑맞았어요.

장교

저런

끝단이

그러니까 같은 일본인끼리, 용감하신 장군님께서라도 좀 도와주시지 않으면...

탑돌이는 다음 단계로 - 초승달 모양으로 대형을 바꾸어 움직이기 시작한다. 탑돌이꾼들이 숙희와 장교 사이를 가로지른다. 그 틈을 타, 승려 복장에 탈을 쓴 괴한이 숙희 뒤에 몸을 붙여 선다.

끝단이

이 구역질나는 조선 땅 어디, 무덤가에서라도 잠을 청해야 하는 신세...

(번개같이 숙희의 입을 막아 끌고가는 탈 쓴 승려)

...부자는 아니어도 이케미치현에서 제일 존경받는 하리家の 영애신데...

2. 절 뒤 대숲 (밤)

축제 소음도 여기서는 희미하다. 숙희 냄새를 맡으며 여기저기 더듬는 강도. 일본 여인처럼 앙탈부리는 숙희, 옷자락이 견혀 올라가 흰 다리가 시정없이 드러난다. 손을 썩 넣어 숙희 엉덩이를 주무르는 강도, 탈에 막힌 목소리로 -

강도

요, 요 왜년 좀 보소...

엉덩이는 빵처럼 부풀어 올랐고...

음...갈라진 틈 속에 진짜 맛있는 게 들었을 듯도 한데?

숙희의 사타구니에서 숙녀용 지갑이 나오자, 즐겁게 놀라더니 제 바랑에 넣는다. 이번에는 가슴께 손을 넣는데, 나오는 건 신사용 지갑. 어라? 이상한 느낌에 또 더듬어 보면 지갑이 하나, 둘, 셋....그리고 막대시탕이 하나. 어리둥절해져서 숙희와 지갑들을 번갈아 보는 강도.

숙희

에잇, 니미릴 -

(짜증난 얼굴로 남자를 말치더니 옷매무새 가다듬으며)

초량에 [보영당] 알려?

(난데없는 조선말을 듣더니, 눈 껌뻑거리며 고개 가우뚱하는 강도)

알어, 몰려?

강도

아는... 데요...?

강도, 뒷덜미에 단검이 와 닿자 소스라친다. 어느새 나타난 조가이(20대 초), 씩 웃으며 바닥에 침을 찍 뱉는다.

강도의 탈을 벗기는 숙희, 의외로 순박한 얼굴이 드러난다. 숙희, 탈을 쓰더니 직업적인 건조한 말투로 -

숙희
...일단 가진 거 다 내놔봐.

탈 쓴 숙희 얼굴이 정지 화면으로. '第一部 : 숙희 이야기'라는 세로 자막 떠오른다.

3. [보영당] 식당 (밤)

- 아기에게 젓 물리는 끝단어. 지갑들, 구깃구깃한 지전과 동전들, 은장도, 노리개, 부채, 각종 반지, 탈바가지 등등 이 놓인 식탁을 만족한 얼굴로 살펴보는 복순(50대 후반), 한 팔이 없어 옷소매가 멋대로 흔들린다.

복순
그 강도자식...종일 열심히 일한 모양이구나.

숙희
(소리)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면서부터 이 [보영당]에서 자라 일찍이 다섯 살적에
진짜 돈, 가짜 돈을 구별할 줄 알았고 그 후로는
식초로 보석 닦는 요령이나 비단 다루는 법, 자물쇠 여는 기술까지 두루 익혔지만...

한 눈에 루페를 대고 식초로 반지를 닦는 숙희, 크고 둥근 월장석의 아름다움에 취해 한참을 들여다본다. 비단 부채를 착- 펴보는 끝단어. 불빛에 지전들을 한 장씩 비춰보는 조가이. 울음소리가 들리자 일어서는 복순, 끝단어 도움을 받아 아기를 업는다. 또 다른 아기가 울기 시작한다. 구석에 놓인 7개 나무상자마다 아기가 들었다.

숙희
(소리)
...이 애기들은 그런 귀한 재주는 못 배울 팔자다.
낱자마자 버려지는 애기들, 우린 이것들을 먹고 키워 내지에 팔아넘겼다.
애 못 낳는 마나님들이 몰래 사가지고, 제가 낳은 척한다고 했다.
곧 굶어죽을 어린것들을 부잣집 도련님, 아가씨로 만들어 주다니 얼마나 보람찬 일인가.

새끼고양이를 옮기는 것처럼 양손에 하나씩 아기를 대롱대롱 데리고 오는 숙희, 아기들이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울어 젖히는 동안 식탁에 올려놓고 기저귀를 갈아준다. 상자 속 세 아기에겐 번갈아 미음 먹이는 복순. 툴툴이, 미음을 흘리는 아기의 입 주변을 깔끔하게 닦아주기까지, 한 손만으로 잘도 해치운다. 아기들은 울면서도 새 새끼처럼 열심히 받아먹는데 한 녀석만 미음도 안 먹고 울기만 한다. 복순, 병에서 사케 한 스푼을 따라 아기 입에 번개 같이 밀어 넣어준다. 꿀꺽 삼키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입맛을 찻찻 다시는 아기. 병에 입 대고 한 모금 마시는 복순, 나지막하게 카- 한다. 사케 마신 아기, 벌써 즐기 시작. 복순, 업었던 아기를 내려 댈다. 아기 하나만 안고 나머지는 도로 상자에 눕히는 숙희, 젓 물려놓고 꾸벅꾸벅 조는 끝단어를 물끄러미 본다.

숙희
(소리)
끝단어는 제 새끼 아니면 절대 젖을 안 준다...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누구든지 다 맥여주면 좋잖은가...나도 젖이 나오면 얼마나 신날까...

밖에 맹렬히 개 짖는 소리에 이어 쿵- 쿵- 쿵- 자신 있게 문 두드리는 소리. 식구들,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더니 갑자기 연습한 것처럼 재빨리 움직인다. 아기를 내려놓은 끝단이가 뛰어가 계단처럼 생긴 비밀서랍을 열자 조가이는 장물들을 쏟아낸다. 숙희는 소란을 틈타 잼싸게 반지를 빼돌린다. 복순은 기다렸다가 조가이가 비밀서랍 잠그는 것을 확인하고 문 연다. 찬 비바람이 훑 밀려들면서 어두운 그림자가 성큼 들어선다.

백작

어유- 집이라고 뭐, 저택도 아니면서 사람을 이렇게 한테 세워놔요?

어깨에 묻은 빗방울을 털면서 종질모를 벗자 가느다란 콧수염을 맴시 나게 손질한 남자(30대)의 얼굴이 드러난다. 재빨리 일어난 끝단이와 복순의 눈썹과 입꼬리가 싹 말려 올라간다.

복순/끝단이

백작

숙희

(소리)

어떤 여자들은, 백작과 눈이 마주치면 아랫도리가 조여 온다고 한다.

(백작과 눈이 마주치자 다리를 꼬면서 발끝에 지그시 힘을 주는 끝단이)

그 사람 눈을 보면, 밥그릇 뺏긴 삼살개가 떠오른다면서 눈물짓는 여자도 있고

(애뜻한 눈빛으로 백작을 보는 복순, 긴 한숨 쉰다)

하지만 난 그런 데 안 넘어간다,

난 다섯 살적부터 진짜 돈 가짜 돈을 가릴 줄 알았으니까.

구김 하나 없는 고급 양복을 입고 주목을 받으며 서서 궁기에 찌든 실내를 한 바퀴 둘러보는 백작. 복순에게 다가 가 나비장식 머리핀을 빼든다. 성큼성큼 계단으로 가 열쇠구멍에 꽂고 비밀서랍을 연다. ‘허- 알고 있었나...?’ 하듯 혀 내미는 복순. 서랍 안에 든 장물 몇 가지를 골라 꺼낸 다음 불상부터 식탁에 탁 놓는 백작, 아주 단도직입이다.

백작

....어느 역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일본 밀수품을 너물로 써가지고선, 고관대작들 통역을 도맡은 놈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로 합방 때 큰 공도 세우고, 또 그걸 인정받아서 함경도 금광채굴권까지 따냈지만 인제 아예 왜놈이 되고 싶은 거라...끝내 내지의 몰락한 귀족 딸한테 장기들어가지고 마누라 성 따라 ‘코우즈키上月’가 됐잖아?

조가이

어허- 호호호, 호로새끼!

백작

(죽자를 휘리릭 펴서 식탁 너머에 걸자, 우리는 마치 그림 속 집으로 들어갈 것 같다)

그리고는 시골에 저택을 지어서, 책하고 골동으로 가득 찬 서재를 꾸렸어.

거기서 정기적으로 낭독회가 열리면 수집기들이 모여들어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코우즈키 놈은 책하고 그림을 제 살처럼 아끼지만 몇 개는 팔 수 밖에 없거든.

복순

끊임없이 새 것을 사야 하나까.

백작

(‘역시...!’ 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지만 죽어도 팔고 싶지 않은데 팔아야 한다면?

복순

가짜를 팔지.

백작

늪은, 정교한 위분을 만들 전문가를 수소문합니다.
(양손바닥을 마주 비비는 백작, 손을 떼자 마술처럼 은제담배케이스가 나온다.
그것을 불상 곁에 놓는다)
제 늪처럼 가짜가 아니라 진짜 일본인, 게다가 희족.
(구두 굽끼리 딱 소리 나게 부딪히는 동시에, 가슴 내밀고 턱을 올리며)
나교야의 백작 후지와라님이시지.

끝단이가 담배케이스의 한 모서리를 잡아당기자, 짧은 칼이 쏙 빠진다. 단도라기보다는 좀 큰 바늘에 가까운 크기지만 그 예리한 날은 꽤 위험해 보인다.

복순

가짜 만들면서 진짜를 빼돌릴 생각이구나, 가짜를 두개 만드는 거지!
(웃으며 고개를 젓는 백작, 호리호리하고 화려한 일제채색술병을 올려놓는다.
복순, 술병을 잠시 노려보더니 손가락질하며)
미누라! 그 왜년을 피어서...

또 고개 젓는 백작.

조가이

따따따... 딸이겠지! 마마, 맛이 더더, 더 졸깃할 테니...

끝단이

예뻐요?

백작

(술병의 가냘픈 목을 쓰다듬으며)
코우즈키의 처는 후사도 없이 진짜 죽었어.
그 ‘죽은 아내의, 죽은 언니의, 살아있는 딸’이 낭독회에서 책을 읽지.

끝단이

근데 예뻐요?

백작

그리고 고아고... 뭇보다도 애비가 부자였지...

난 그 여자를 데리고 내지로 달아나서 혼인하고 상속을
받을 거야, 그리고는 미친년으로 몰아서 정신병원에 처넣어버릴 거고.

복순

백작이, 오랜 꿈을 드디어 이루는구먼
(흐뭇한 미소를 짓지만 이내 사라지며 고개 가우뚱)
근데 이 애길 왜 우리한테 와서 하는 거야?

천천히 돌아보는 백작. 그 시선이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하는 숙희. 다가오는 백작, 눈을 들어
다보면서 뺨을 부드럽게 쓰디듬는 동안 숙희는 조건반사처럼 그의 재킷주머니에 몰래 손을 넣는다.

백작

...내가 여기 온 건 너 때문이야
(고졸한 조선분청사기화병을 들어 일제 술병 옆에 놓으며)
...널 데려가려고.

복순

...우리 숙희가 왜 필요한데?

백작

노인네를 겨우 설득해서 처조카한테 서양화를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받았어요.
그 다음엔 공사를 좀 했죠...준코라고, 히데코의 하녀 있거든요.
(팔에 안은 아기 엉덩이를 통통 두드리며 ‘히데코, 히데코...’ 가만히 입 속으로 읊조려보는 숙희)
...수치를 주어서 그 집서 쫓겨나게 만들었어요.
(아유하는 사람들을 향해 능글맞게 씩 웃어주더니 조선화병 위에 담배케이스를 얹으며)
달고 달은 우리 숙희가, 순진한 히데코의 새 하녀가 되어가지고...
(담배케이스 위에 다시 일본술병을 올려놓으며)
히데코의 동정을 나한테 던지시 일러주고, 날 사랑하도록 살살 꼬여주기만 한다면...

숙희

(소리)

사랑? 사기꾼이 사랑을 아나?

조가이

빠빠빠, 빨강 파, 파랑 물감을 짜다 말고...
(담배케이스 칼을 집어 일본술병 주둥이에 넣었다 뺐다 하며)
...허허허허허...허연 물감을 짜는 거지!

약자지꼴 흥겨워진다. 호탕한 사내 웃음을 웃는 숙희. 케이스에서 담배를 꺼내 물면서 다가오는 백작, 조금 전 숙
희가 주머니에서 훔쳐간 지폐다발을 조용히 회수해간다. 파- 입을 비죽이는 숙희.

복순

...재산은? 부자긴 한 거지?

백작

매일 밤 자기 전에 다시 생각나는 액수죠...

...현금으로 백오십만, 국채로 삼십만

(화로 속 석탄이 딱 튀고 조가이는 휘파람 분다)

...친척이라고는 이모뿐이었는데 그나마 죽는 바람에, 이모부가 자동으로 후견인이 된 거지.

글자 그대로 후견인일 뿐이고, 상속 재산은 다 히데코 거야

그래서 그 자는 곧 히데코와 결혼할 작정이고

조가이

(격분해 거의 일어서)

처, 처, 조카하교? 아, 아주 개개개...개새, 개새...

복순

(도덕 따위엔 관심 없다는 듯 손을 내저어 조가이 말을 끊으며)

좋아, 우리 숙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지?

백작

오천, 히데코 옷하고 패물까지 없어서.

조가이, 격분은 금세 사라지고 또 휘파람을 분다. 이번엔 끝단이가 벌떡 일어선다.

끝단이

제가 해요, 제가 한다구요! 일본말도 더 잘하고 하녀 경험도 많아요!

복순

(거의 눈물이 글썽할 만큼 감성적인 눈빛으로 숙희를 보며)

그 정도 사업이면, 네 어미한테 부끄럽진 않겠구나.

겨울에 얼어 죽는 얘기도 없을 테고...

모두 숙희 답을 기다리느라 정적. 숙희가 아기 엉덩이 토닥거리는 소리만. 이윽고 입 여는 숙희.

숙희

일만

(사람들, 입을 딱 벌린다)

일이 어그러져도 천은 받아야겠어요.

사람들, 일제히 고개 돌려 백작을 본다. 지니친 요구를 했나 싶어 침을 꿀꺽 삼키는 숙희.

숙희

(소리)

나야 물론 사랑이 뭔지 안다.

4. [보영당] 침실 (밤)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 창 맞은편에 이부자리. 모로 누운 숙희, 눈을 빛내며 생각에 잠겼다. 숙희를 뒤에서 감싸듯 몸을 붙이고 누운 복순, 숙희 머리카락을 만지며 잠에 빠져들고 있다.

숙희

울 엄니, 목 매달릴 때 많이 울었어요?

복순

도둑질 한 번 하고 교수형 당하는 여자들도 울지, 많이 울어.
근데 네 어미는 천 번 도둑질을 하고 딱 한 번 잡혀서 죽었던 말씀이야...울었냐?
(웃음 터뜨리며)
웃었지...너를 낳고 죽을 수 있어서 운이 좋았다고,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고
그러니 너는 얼마나 씩씩한 도둑이 되겠나?

기분이 좋아져 으하하- 너털웃음을 터뜨리는 숙희. 그러면서도 짙은 눈물을 손등으로 쓱 훑는다.

숙희

(소리)

엄마는 값나가는 것들을 몽땅 복순씨한테 남겼다.
내가 커서 남자들에게 가량이 벌리면서 살지 않게 해달라고
복순씨는 아무데도 날 팔지 않았고 소매치기, 사기 치는 법까지 가르쳐 주었다.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어느새 가볍게 코 고는 복순. 눈 말뚱말뚱 뜨고 천장을 보는 숙희 얼굴에 덮이는 편지 목소리.

백작

(천천히 정중하게, 소리)

아직도 하녀를 못 구하셨다는 이야기, 전해 들었습니다.

5. [보영당] 앞 (낮)

영성한 목조 이층집들이 늘어진 골목에 바람이 휘돈다. 문 위에 붙은 [보영당寶嬰堂]이라는 간판. 아래로는, 작은 글씨로 '전당포, 물품매매'. 끝단과 조가이, 양팔에 아기 안고 포대기로 또 하나씩 업었다. 복순은 하나 업었고 숙희는 하나 안았다. 아기 총출동이다. 복순은 나비 머리핀을 뽑아 숙희 머리에 꽂아주고는 한 팔로 꼭 안는다. 아기를 복순에게 넘기는 숙희, 큰 가방을 든다. 하녀답게 수수한 치마저고리 차림이다.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는 끝단이다.

끝단이다

내가 가야 되는데...

한참 걷다가 돌아보는 숙희. 복순이 손을 흔든다. 바람에 펄럭이는 빈 소매를 잡아 그 끝으로 눈물을 찍어낸다.

백작

(편지 목소리. 천천히 정중하게)

본래 하녀란 짓가락과도 같아, 쓸 땐 몰라도 없으면 그 불편이
심히 고통스러운 법...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나고야서 자랄 때 젓을 먹여준 조선인 유모의 조카딸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모시던 일본인 부인이 갑작스레 귀국하게 되어....

6. 자동차 (저녁)

가방을 꼭 끌어안고 운전수 옆에 앉은 숙희. 입을 꼭 다문 채 겁먹은 얼굴. 해무가 잔뜩 낀 해안도로를 달리는 차.

백작

(목소리)

....일 자리를 잃고 오갈 데가 없어졌다 하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아이를
추천 드려볼까 합니다. 천하고 어리석지만 제 할 일은 배웠고....

7. 코우즈키 저택 대문 (밤)

양식 철문 앞에 이르러 차를 세우는 운전수, 대문 너머 꽤 큰 오두막의 문지기에게 인사한다.

백작

(목소리)

....귀엽 받고 자란 강아지처럼 주인을 잘 따르니
곁에 두시면 아가씨께 꽤 쓸만한 짓가락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은, 백작 후지와라 올림.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자 차에서 내리려고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드는 숙희. 운전수, 다시 출발하며 나직이 -

운전수

시기상조여....

8. 코우즈키 저택 앞 (밤)

한참을 더 달리고서야 일본과 유럽 혼합양식의 기묘한 형태의 저택이, 안개 너머로 희미하게 위용을 드러낸다. 앞에 차가 선다. 커다란 현관 앞에 선 사사키 부인(50대), 그녀의 굳은 얼굴. 올려다보는 숙희의 주눅 든 얼굴.

9. 복도 + 부엌 (밤)

앞만 보고 걸으면서 기복 없는 억양으로 말하는 사사키 부인을 따라가는 숙희. 이리저리 꼬부라진 복도가 얼마나 긴지, 자꾸 뒤돌아보게 된다.

사사키 부인

....아가씨가 남긴 음식은 먹어도 좋지만, 찻잎 남은 건 주방 아이들 몫이야.

남은 기름하고 비누는 집사님 드리고.

도둑질이 밝혀지면 그날 안으로 떠나야 한다?

....물론 요시코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지만.

(어리둥절해 하는 숙희를 돌아보며)

아, 요시코는 너야, 이 집에선 다 일본식이거든... 집사님도 일본분이고..
주인마님하고 아가씨 앞에선 일본말만 써야돼.
난 새로 하인 일을 시작했다는 치들은 신용 안 해, 인사는 그럴 듯하게 해도
불이라도 나면 제일 먼저 족자 같은 걸 견어 달아나는 것들이라...

숙희

저도 대대로 족자 같은 거를, 아니아니, 하인 일을 하던 집안 출신인데...

우뚝 서는 사사키 부인, 돌아본다. 엄격한 얼굴.

사사키 부인

요시코...우리 나라마님은 조선 부자 중에 제일 서책을 사랑하는 분이서,
서책 애호가 중에 제일 부자시고...
이런 댁에 왔으니 네가 얼마나 싹싹한 하녀가 되어줬니?

마침 목적지에 도달한 모양이다. 문 여는 사사키 부인.

어두운 복도를 한참 걸어온 숙희에게는 눈이 부시게 볼 밝혀지고 하얗게 회칠된 크고 깨끗한 부엌, 들보에는 토끼머
괘 같은 것들이 몇 마리 걸렸고 그릇과 조리도구들이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바글바글한 남녀 하인들.

사사키 부인

인사 드려, 가토 집사님이셔.

허리 굽혀 인사하는 숙희. 점잖게 정장하고 앉아 차 마시던 대머리 사내(60대), 고개만 까딱.

집사

동래서도 아주 고급스런 곳에 있었다고?

질문을 들으면서도 구석구석 훑어보는 숙희, 처음 와보는 부잣집이 [보영당]과 비교되어 점점 위축된다.

숙희

미나미씨 댁입니다.

집사

그 댁 집사가...?

백작

(소리)

고바야시 상.

10. [보영당] 부엌 - 회상

아궁이 근처에서 몸을 웅크린 턱시도무늬 고양이, 제 이름을 알아듣는지 돌아본다. 눈 아래쪽으로 얼굴이 희다.

백작

어떤 분이지, 고바야시 상은?

백작 곁의 숙희가 ‘고바야시’ 부르며 무릎을 탁탁 쳐도, 본 척 만 척 털만 핏는 고양이. 다가가 쓰다듬는 숙희.

숙희

(소리)

특히 청결을 중시하는 분이었어요, 얼굴이 쌀밥처럼 희시고....

11. 코우즈키 저택 부엌 (밤)

집사

(고개 끄덕이며 짐작계)

들어본 것 같군, 얼굴 희다는 데서 딱 알겠어.

(웃음 참는 숙희의 아래위를 훑어보더니 손가락질하며)

그런데 기모노는 없나? 그 텍에선 조선옷을 허용했는가?

숙희

예, 그렇습니다만....

집사

쯔쯔....고바야시 상은 청결을 중시한다더니....

12. 복도 + 숙희 방 (밤)

어두운 복도 끝. 등롱 들고 방문 앞에 선 사사키 부인, 뒤에서 기웃거리는 숙희. 벽장보다 조금 클까 싶은 방 한쪽에 침구, 맞은편 벽에는 미닫이문. 들어가는 사사키 부인, 침구 머리맡 등잔에 불을 옮겨 붙이며 속삭인다.

사사키 부인

히데코 아가씨는 신경쇠약이라 잠이 잘 깨서.

미닫이문을 향해 턱짓하는 사사키 부인을 보고 깜짝 놀라는 숙희.

숙희

저기 아가씨가 계시다고요?

헛! 하는 사사키 부인. 두려운 눈으로, 파도 모양 연속무늬의 벽지를 바른 미닫이문을 바라보는 숙희.

잠시 후 -

흔들리는 등불에 벽지의 파도가 일렁이는 것 같다. 혼자 남겨진 숙희, 살짝 미닫이문 열고 아가씨의 방을 들여다본다. 황- 밀려드는 바람 소리. 깜짝 놀라 얼른 닫는다.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연다, 아주 조금. 들여다본다. 뭔가 그림자가 너울거리는 것 같기도 하다. 가까이서 들리는 쿵- 소리. 깜짝 놀라 이불 속으로 쑥 들어가는 숙희.

잠시 후 -

히데코
(소리)
아이야! 엄마!

깜짝 놀라 잠 깨는 숙희, 문을 밀고 뛰어나간다.

13. 히데코 방 (밤)

양식 침대. 자면서 비명 지르는 히데코를 흔들어 깨우는 숙희.

숙희
아가씨, 아가씨... 괜찮으세요?

히데코
(눈도 겨우 뜨고 허둥대며)
준코? 준코나?

숙희
준코는 쫓겨났고요, 제가 새로 왔어요.
나쁜 꿈을 꾸셨나 봐요, 아가씨....

차츰 현실감을 찾는 히데코, 그래도 무섭증은 안 가리았는지 이불을 둘러쓰고 숙희한테 손을 내민다.

히데코
네 방 가자.

숙희
네?

히데코
예서는 이모가 뵤단 말야....

숙희
네?

히데코
저기 큰 뱃나무 보이지, 우리 이모가 미쳐가지고 거기 목을 뺏거든?
가끔 달 없는 밤이면 이모 귀신이 저기 대롱대롱....

창가로 가 정원을 내려다보는 숙희. 그 틈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숙희 방으로 달려가는 히데코. 탁자 위에 놓인 물 건들이 이불에 쓸려 외장창 떨어지자 숙희도 “와아악!” 하고 함께 소리 지르며 우당탕탕 뛰어간다.

14. 숙희 방 (밤 - 아침)

숙희의 자리에 누운 히데코. 곁에서 이부자리를 매만지며 시중드는 숙희, 여행가방에서 사케병과 티스푼 꺼낸다.

숙희

자...이거 드시는 거예요

(갓난아기 다루듯 히데코의 머리를 안고 사케 한 스푼을 먹이며)

저희 이모는 자다 깨서 우는 아기한테 이렇게 해요.

히데코

(사케 마시고 짹짹 입맛 다시며)

난 진짜 아기는 한 번도 못 봤어.

숙희

(히데코의 등을 두드리며 노래)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아기 엉덩이를 두드리듯 히데코의 등을 톱톱 두드리는 숙희, 긴장이 많이 풀린 얼굴.

숙희

(소리)

백작 말이 딱 맞았다.

이 아가씨는 겁 많고 덜덜어진다다가 정신이 좀 이상했다, 후훗...

15. 하인 숙소 식당 (아침)

상 주위에 앉아 아침 먹는 하인들, 소란스럽다. 혼자만 한복 입은 외톨이 숙희, 조용히 된장국에 밥 말아 먹는다.

16. 하인 숙소 앞 (아침)

사사키 부인이 기다리는 가운데 고무신을 찾는 숙희, 한 짝만 있다. 고개 들자 입구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지켜보던 해녀들 셋, 웃음을 터뜨리고 도망간다. 이슬비까지 내리기 시작해, 땅바닥 젖는 꼴을 보고 한숨 쉬는 숙희.

숙희

(사사키 부인 못 듣도록 조그맣게)

아...씨발 것들을...

숙희

(소리)

나 같은 진짜 도둑이 하녀들한테 당하다니...

숙희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17. 복도 + 히데코 방 (아침)

복도에 선 숙희. 사사키 부인이 방문을 열자 실내가 보인다. 이내 시선 내리고 들어가는 숙희. 화장대 앞 의자에 앉은 히데코 맞은편, 방 한가운데 서는 사사키 부인과 숙희.

사사키 부인
요시코입니다.

허리 굽혀 인사하는 숙희.

숙희
잘 부탁드립니다, 아가씨.

18. [보영당] - 회상

백작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가씨 역을 하는 끝단이 앞에 공손히 서서 인사 연습하는 숙희.

숙희
잘 부탁드립니다, 아가씨.

끝단이
오-냐.

어색해서 킁킁 웃는 숙희.

백작
아가씨보다 먼저 웃어선 안 돼.

긴장하며 얼굴 굳는 숙희, 그 모습 보며 킁킁 웃는 끝단이.

백작
아가씨가 웃는데 안 웃어도 안 돼.

역지로 웃는 숙희.

19. 코우즈키 저택 히데코 방 (낮)

히데코
첫인상이 참 좋네?

그 말에 용기가 난 숙희, 슬쩍 눈을 들어 히데코를 본다. 히데코가 비밀을 공유한 사람끼리 통하는 짓곳은 미소를 사사키 부인 모르게 지어보이자, 백작에게서 배운 대로 따라 웃는 숙희 - 그러나 특유의 사내에 같은 너털웃음. 놀라는 히데코와 사사키 부인. 이내 무안해지는 숙희.

히데코

이 교장은 맘에 드나?

(선뜻 답 못하고 잠깐 뜬 들이는 숙희를 보고 힘없이 웃으며)

맘에 없는 말은 못하는구나?

이렇게 우중충한 곳을 좋아할 순 없지, 여긴 절대 별이 짹짹 내려찍지 않아.

이모부가 금지하셨으니까... 햇빛은 책을 바래게 하거든.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분간 못하고 곤란해 하는 숙희)

우린 좀 닳은 것 같아... 게다가 또 고아라지?

사사키 부인

그럼 전 이만....

물러나는 사사키 부인을 지켜보며 말을 잇는 히데코.

히데코

뭐, 나야... 돌아가신 이모하고 저 사사키 부인이

어머니의 사랑을 알려주려고 애를 많이....

(사사키 부인 나가고 문 닫히자)

....안 쓰셨지만.

눈이 동그해지는 숙희. 싱긋 웃는 히데코, 얇고 색 고운 가죽장갑 낀 손으로 가까이 오라고 손짓한다.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작은 로켓을 열어 보여준다. 안에 젊고 예쁜 여성의 옆얼굴 초상화가 들었다.

히데코

울 엄마야.

숙희

매초롬하니 참 미인이세요.

히데코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 히데코 보는 숙희)

매초롬해, 나도? 말해봐, 맘에 없는 소리 못하잖아.

(자세히 보라는 듯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꼼짝 않고 앉은 히데코)

다들 그러던데... 난 엄마만 못 하다고

숙희

하지만 후지와라 백작님 말씀으로는...

말을 멈추는 숙희. 궁금한 듯 다가와 앉는 히데코.

히데코

백작님이, 뭐?

숙희

아가씨 얼굴은...

히데코
내 얼굴은?

숙희
아가씨 얼굴은...
(말 꾸며내느라 끄끄 앓다가 시간 좀 벌여보려고)
근데 아가씨 왜 일본말 안 쓰세요?

히데코
지긋지긋해, 이모부가 읽으라는 책들이 다 일본 거거든.
그래서, 내 얼굴은?

숙희
어...자기 전에 꼭 생각나는 그런 액수, 아니, 얼굴이래요.

히데코
(얼굴 빨개지며)
정말? 백작님이 그러셨어?

로켓을 화장대 위에 올려놓는 히데코, 가웃하며 거울을 들여다본다.

숙희
(생각났다는 듯 소매부리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내며)
미나미 부인이 주신 소개장이예요.

창가에 가서 개봉하는 히데코, 긴장해서 보는 숙희. 읽다가 잠깐 숙희를 넘겨보는 히데코. 그 날카로운 시선에 겁 먹는 숙희, 위조된 소개장이라는 것을 들켰을까봐 침을 꿀꺽 삼킨다.

히데코
미나미 부인이 정말 너를 높이 평가해 주었구나...읽어볼래?

숙희
(당황해)
아니오....

히데코가 코앞에 들이대자 어쩔 수 없이 들여다보는 숙희. 멋진 필체의 일본어 펜글씨가 고급종이에 가득.

백작
(소리, 교양 있는 여자 목소리 흥내)
이 편지를 읽으시는 분께....

20. [보영당] - 회상

펜촉이 종이를 사각사각 긁는다. 탁자 앞에 앉아 소개장을 쓰면서 내용을 읊어주는 백작.

백작

동래에 사는 미나미 이야코는 기쁜 마음으로 남숙희 양을 추천합니다.

메이지 *년부터 *년까지 저희 집에 봉사해온 남숙희 양은....

(수십 개 자물쇠를 늘어놓고 꼬챙이나 머리핀으로 따는 연습을 하면서 듣는 복순, 숙희, 끝단이)

그 타고난 정직성과 정확성으로 모든 하인의 모범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우웻! 토하는 시늉하는 숙희.

21. 코우즈키 저택 히데코 방 (낮)

얼굴이 빨개지고 코끝에 땀이 맺힌 숙희, 추천서를 뚫어지게 보더니 절망적인 얼굴로 히데코를 향해 고개 든다.

숙희

....워를 줄 몰라요, 아가씨.

히데코

전혀? 조선 글도?

(눈썹연필로 종이에 무어라 갈겨쓰는 히데코, 숙희에게 보여준다.

우리는 볼 수 없다)

요시코 네 이름이야, 이름도 몰라?

(비참한 얼굴로 고개 젓는 숙희.

놀라움에 눈이 커지는 히데코, 흠 문은 숙희의 한 쪽 발 발견하고)

발은 왜 그래?

잠시 후 -

바닥부터 천장까지 칸칸이 가득찬 신장. 그 앞에 서서 벌어진 입을 못 다무는 숙희.

숙희

어쩌면 이렇게...

히데코

갈 데가 없잖아, 난.

(‘그런데?’ 하듯 보는 숙희에게)

새 신을 신으면 노상 다니던 길도 처음 가는 것 같거든....한 켤레 꼴라.

(놀라서 돌아보는 숙희에게 괜찮다는 미소를 보인다가, 숙희가 대뜸 가장 수수한 것을 고르자)

왜, 더 이쁜 거 하지? 이거나....아니면, 이거....

(말없이 고개 저으며 배시시 웃는 숙희)

....그러든가, 그림.

(시계 보더니 한숨을 크게 쉬고, 서랍에서 하늘색 양가죽장갑을 꺼내 끼면서)

낭독연습 간다....한 시 되면 꼭 문 두드려 줘, 알았지?

잠시 후 -

방금 전과는 판판으로 무표정한 숙희, 머리에 꽃힌 나비 머리핀 뽑아 보석함의 자물쇠를 똑딱 연다. 안에 든 브로치, 귀걸이, 목걸이 등 액세서리들 중에서 금세공된 오페라글라스를 발견하는 숙희, 창가로 간다. 내려다본다. 싫은 곳을 억지로 가는 사람답게 천천히 정원을 가로지르는 히데코 모습을 오페라글라스로 쫓아가며 보는 숙희.

잠시 후 -

- 히데코의 옷장을 여는 숙희, 손으로 그 화려한 옷들을 스르륵 살펴본다.
- 서랍을 열자 몇 백 켈레잠 되어 보이는 장갑이 세로로 뻗뻗하게 정리되어 있다.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숙희.
- 바닥에 아무렇게나 철퍼덕 앉은 숙희, 커다란 장식 달린 모자를 쓰고 거울을 이리저리 들여다본다. 이런 걸 왜 쓰는지 알 수 없다는 듯 벗고 다른 모자상자를 열어보는 숙희, 타조 깃털 장식, 과일 장식 같은 것을 한심하게 보다가 마지막 상자를 연다. 뱀이 꼬리를 틀 듯 동그랗게 말린 밧줄을 발견하고 고개 가우뚱하는 숙희.

22. 정원 (낮)

부슬부슬 비 내린다. 지우산 하나는 쓰고, 또 하나는 겨드랑이에 끼고 걷는 숙희. 오래된 벚나무 앞을 지난다.

히데코

(소리)

다들 잘라버리자고 했거든? 근데 이모부는 있잖아...
일본서 가져온 저 나무가 이모 영혼을 빨아들였다는 거야...어휴 -
아무리 엄마아빠 나라에서 왔대도...저 나무는 싫어!

젖은 나무의 몸통이 번들거린다. 왠지 스산하다. 요망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기던 길을 재촉하는 숙희.

23. 별채/서재 (낮)

연못 근처의 2층 높이 별채 앞에 서서 기다리는 숙희, 제 발에 신겨진 히데코의 고급 신을 요모조모 뜯어본다. 안에 서는 나지막한 히데코와 이모부의 목소리 들린다. 문에 귀 대보는 숙희.

코우즈키

언제나 이런 식이야, 잘못했다고 하고선

(시계가 땡, 하고 한 시를 울리자 서슴없이 문짝을 두드리는 숙희)

또 또 또!

똑똑똑 노크 소리가 정확히 코우즈키의 '또, 또, 또!'에 겹쳐진다. 아무래도 실내의 두 사람은 못 들은 모양이다, 침묵이 흐른다. 용기를 내는 숙희, 두꺼운 참나무 문짝을 힘껏 민다.

이 별채는 온전히 서재에 바쳐졌다. 2층 높이까지 세 방향으로 둘러싼 책장, 빼곡히 들어찬 책들. 여기저기 걸리고 세워진 그림과 조각상. 입구 쪽으로는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맞은편 유일하게 서기가 안 세워진 벽에는 작은 무대처럼 생긴 도쿄야마. 계단 옆 구석에는 기계와 연장이 잔뜩 놓인 제책공방이 차려졌다. 뺨 뚫린 가운데 공간에는 거대한 책상 놓였고 그 뒤에 검정 기모노 입은 코우즈키(50대)가 앉았다. 그 맞은편, 서기의 것 같은 작은 책걸상 옆 바닥에 히데코가 고개 숙인 채 무릎 꿇고 앉았다. 숙희 쪽에서는 둘의 옆모습이 보인다. 눈이 커지는 숙희, 저도 모르게 발을 들여놓는다. 코우즈키, 눈썹을 세우고 돌아본다. 녹색 렌즈로 된 안경을 썼고 히데코처럼 얇은 가죽장갑을 끼었다. 코우즈키, 어이가 없는지 누구냐고 묻는 대신 히데코를 본다.

히데코
새로 온 하녀예요.

숙희가 공손히 인사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내딛으려 하는데 기겁하는 코우즈키, 펜 든 손으로 숙희 앞 방바닥을 가리키면서 절규한다. 펜이 흔들리면서 잉크가 바닥에 흩뿌려진다.

코우즈키
뽐, 뽐, 뽐!

내려다본 숙희, 금지막하게 따리 튼 뽐을 보고 비명 지른다. 코우즈키가 천장에서 늘어진 줄을 잡아당기자 벽에 접혀있던 주름식 쇠창살이 짹 펼쳐진다. 재빨리 한 발 물러서지 않았다면 치일 뻔했다. 자세히 보니 그 뽐은 바닥에 붙박아놓은 채색도기다. 한숨 돌리는 숙희를 차분히 타이르는 히데코.

히데코
거기서 더 들어오면 안 돼, 요시코

코우즈키
명심해라, 뽐이 '무지의 경계선'이다.

회중시계를 꺼내보더니 안경을 벗고 약통에서 알약을 하나 꺼낸다. 약을 올려놓는 헛바닥이 시커멓다. 그리고 보니 입술도 아래위 맞닿은 부분이 꺼멓게 색이 죽었다. 물로 약을 삼키면서도 뚫어지게 숙희를 보는 코우즈키.

24. 정원 (낮)

소리 죽여 웃으며, 우산은 쓰는 등 미는 등 손잡고 뛰는 히데코와 숙희.

히데코
골똘히 생각할 때 펜촉에 침 묻히는 버릇이 있어서 그래, 그렇게 이상한 분 아니야.

숙희
아가씨 그렇게 글을 잘 읽으시면서 틀릴 때도 있나보죠?

히데코
(별채를 돌아보며)
이모부 책들은 너무, 너무, 따분하거든...자꾸 탄생각을 하게 돼...
(숙희 뒤로 땅바닥을 가리키며, 삼촌 말투 흉내)
뽐, 뽐, 뽐!
(깔깔 웃는 숙희, 그러나 히데코는 계속 손가락질하며)
뽐, 뽐, 뽐!

웃으며 돌아보는 숙희, 슈슈슈 빠르게 기어가는 진짜 뽐을 발견하고 기겁한다. 와아악- 소리를 지르며 잡았던 손도 놓고 도망치는 숙희와 깔깔 웃으며 따라가는 히데코의 모습이 벗어나 가지 사이로 조그맣게 내려다보인다.

25. 하인 식당 (아침)

긴 상 주위에 두 줄로 마주 보고 앉아 식사하는 열댓 명의 하녀들, 중간에 기모노 입고 앉은 숙희. 하녀1이 벌떡 일어나더니 쭈뼛쭈뼛 숙희 앞으로 온다. 음음, 하고 헛기침을 해서 모두의 주목을 끈다. 영문 몰라 올려다보는 숙희. 고무신 한 짝을 내미는 하녀1, 용기를 끌어모아 큰소리로 선언하듯 말한다.

하녀1

장난쳐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렇게, 용서해줘.

숙희

응...어...

어째야할지 몰라 어정쩡하게 고개 끄덕이는 숙희. 숙제 미친 아이처럼 재빨리 제 자리로 돌아가 밥 먹는 하녀1. 어린 하녀 하나가 팔랑팔랑 뛰어와 맨 끝에 있는 하녀1에게 뭐라고 속삭인다.

하녀1

정말?

하녀1이 맞은편의 하녀와 그 옆의 하녀에게 속삭이고, 소문은 두 줄의 귓속말 파도를 타고 퍼진다. 중간의 숙희를 제외하고. 숙희 뒤로 몸을 빼서 소곤대는 좌우 하녀들. 소식을 들은 하녀들은 웃으며 기뻐하고 아직 못 들은 하녀들은 궁금해 한다. 사사키 부인이 나타나자 소문 전파가 중단되고 아직 못 들은 하녀들은 안달이 난다.

26. 히데코 방 (아침)

침대에 앉아 양식으로 아침 먹는 히데코, 찻잔을 든 손이 공중에 떠 있다.

히데코

백작님이?

찻잔을 상에 내려놓는 손이 떨린다. 멍한 눈으로 창밖을 본다. 그런 변화를 관찰하는 숙희.

숙희

....산나시죠?

히데코

내가? 왜?

다 안다는 듯 씩 웃는 숙희.

27. 히데코 욕실 (낮)

편백나무 욕통에 들앉아 막대사탕을 빠는 히데코. 허연 물이 출렁대는 큰 양동이를 흠 하고 드는 숙희.

숙희

두고 보세요, 두부처럼 살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드릴 테니까.

옥통에 부으려고 하는 찰나 재빨리 손을 들어 막는 히데코.

히데코

잠깐

(놀라 멈추는 숙희에게)

뭔데, 그거?

숙희

쌀뜨물이지 뭐겠어요? 우리 이모가...

히데코

내려놓고...저 바구니 보이지? 가져와.

(등나무 바구니를 가져오는 숙희, 같은 크기의 예쁜 유리병들이 가지런히 들었다)

노란 병에서 두 방울만.

노란 액체가 든 작은 병의 코르크 마개를 빼서 냄새 맡는 숙희, 좋은 냄새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지으며 주르륵- 목욕 물에다 붓는다. 급히 숙희 손을 붙잡는 히데코.

히데코

한 방울에 오렌지꽃 이천 송이가 들었던 말야

(깜짝 놀라는 숙희, 얼른 뚜껑을 닫고 노란 병을 바라본다.)

히데코, 오일을 물에 잘 섞으며)

하얀 병에서 다섯 방울....아몬드 기름이야, 그건

(조심스런 동작으로 하얀 병 속에 든 오일을 정확하게 다섯 방울 떨어뜨리는 숙희)

그리고...푸른색 소금 두 스푼....보라색 말린 꽃 한 움큼.

숙희

이건 무슨 꽃이에요, 아가씨?

히데코

두부처럼 살을 부들부들하게 해주는, 라벤더.

제 어깨에 물을 끼얹으며 토닥토닥 하는 히데코. 숙희, 히데코의 숙옷을 미리 제 품에 안아 덥히며 뒤에서 내려다본다. '참, 애쓴다....' 하는 표정으로.

백작

(소리)

숙옷은 미리미리 품으로 덥혀놓는 거야.

복순과 백작이 아가씨 역을 하는 실습. 숙희가 들고온 하다주반(숙옷 상의)을 뺏어 만져보더니 툭 던지는 백작.

백작

뭐든지 먼저 해놔야 돼, 그래야 아가씨가 아무 생각도 안하지.

아무지게 각을 세워 하다주반을 입히는 끝단이. 숙희가 백작에게 걸쳐 입힌 것은 주르르 흘러내린다. 짜증내는 숙희. 뒤에 서서 구경하다 웃음 터뜨리는 조가이.

끝단이

기모노는...나비가 그려진 남색을 입으시겠어요, 벚꽃문양의 진홍색을 입으시겠어요?

숙희

(지쳐서 심술)

송충이가 그려진 동색을 입으시겠어요, 뽕이 그려진 송충이색을 입으시겠어요?

복순에게 기모노 입히며 킁킁 웃는 끝단이의 숙련된 손길을 결눈질하며 백작에게 서툴게 기모노 입히는 숙희. 옷 입히기 좋게 팔을 벌리고 선 백작, 앞섶 여며주느라 가슴께로 바싹 다가온 숙희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백작.

백작

생각을 못하게 하는 짓, 그게 바로 하녀가 아가씨를 지배하는 수단이야.

흐음 하고 숙희의 머리 냄새를 맡는 백작. 얼굴 빨개지는 숙희.

29. 히데코 방 (낮)

목욕을 막 마친 히데코를 수건에 감싸 꼭 안은 숙희, 머리를 말려주면서 코를 대고 향기를 맡는다.

숙희

저희 이모는요...손님 오신다 하면 밥 먹다가도 숟가락 놓고 애기씨를 씻겼어요
손님이 좋은 냄새 난다고 그럴 때가 이모는 제일로 기뻐거든요
....아가씨는 제 애기씨세요

히데코

(숙희 말이 기쁘고 부끄러운 듯)

사탕, 맛있었어.

숙희

이모가 애기 씻길 때 사탕을 물리거든요, 목욕이 얼마나 달콤한지 가르쳐준다고
특히 백작님은 사탕 안 주면 절대 물에 안 들어가는 아기였대요.

히데코

(볼을 손으로 비비며 눈물이 글썽)

장난꾸러기였을 것 같아, 백작님은....

숙희
왜 그러세요?

히데코
입 안이 자꾸 베여....이 하나가 뽀족한가봐.

히데코를 창가로 데려가는 숙희,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들여다본다. 간유리를 통해 희미한 햇빛이 들어올 뿐이지만 히데코의 벌어진 입 안에 분홍빛 혀와 하얀 이들은 잘 보인다. 손가락을 넣어 하나씩 만져보더니 재빨리 화장대로 가는 숙희, 반진고리에서 은제 골무를 가져온다. 다시 입 벌리는 히데코. 골무로 이를 갈기 시작하는 숙희. 사각사각. 처음에는 눈을 감고 있더니 어느새 숙희를 보는 히데코, 뺨이 붉게 물든다. 숙희, 히데코의 시선을 피해 목을 본다. 히데코가 침을 삼키자 울대뼈가 올라갔다 내려온다. 방금 목욕해 촉촉한 피부를 보면서 향기를 맡는 숙희. 느슨하게 걸친 유카타 안쪽으로 보이는 젓꼭지가 숨 쉴 때마다 오르락내리락한다. 이윽고 골무를 빼는 숙희, 맨 손가락으로 이를 가만히 문질러 매끄러워졌는지 확인한다. 히데코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숙희를 본다.

30. 현관 (낮)

각자 가장 좋은 옷 차려입은 사사키 부인과 하인들이 나란히 서서 인사한다. 백작이 차에서 내려 집에 들어선다. 짐 든 운전수가 뒤따른다. 골고루 눈 맞추며 인사하는 백작. 못마땅한 표정의 집사를 제외한 모든 하인과 하녀들, 미소로 답한다.

31. 응접실 (낮)

노크소리에, 이름답게 차려입고 창밖을 내다보며 섰던 히데코가 몸을 돌린다. 하인의 안내를 받으며 백작이 들어선다. 문 옆에 선 숙희를 거들떠도 안 보고 히데코를 향해 직진하는 백작의 활기찬 태도.

백작

도착하자마자 이 방에 들여주시다니 정말 친절하십니다.

여행 때문에 옷차림이 이 지경인데도 말이죠.

(그러나 백작의 차림새에는 한 점 흐트러짐이 없다.)

손을 내미는 히데코. 허리를 살짝 굽히면서 악수하는 백작, 뒤늦게 숙희 발견)

아, 네가 바로 숙희?

숙희

(허리 굽혀 공손히 인사하며, 히데코에게 했을 때와 똑같은 말투로)

잘 부탁드립니다, 나리.

백작

(짐짓 장난스러운 말투로)

네가 잘 못하면 내가 난처해진단 거, 알고 있지?

(숙희 바로 앞에 서서 얼굴을 뺨히 들여다보면서, 둘이서만 통하는 의미심장한 뉘앙스를 담아)

첫인상은 나쁘지 않구나....자, 말해 보거라....네 할 일은 충실히 하고 있느냐?

얼굴 빨개지는 숙희, 저도 모르게 히데코 눈치를 살핀다. 대신 나서서 답해주는 히데코의 음성.

히데코

(소리)

추천 감사드려요, 백작님은 절 위해 완벽한 사람을 골라주셨어요.

백작

절대 둔한 아이는 안 된다고 하셔서 애써봤습니다.

(주머니에서 은화를 하나 꺼내 숙희에게 주며)

외로우신 우리 아가씨를 잘 부탁한다.

(또 히데코 눈치를 보는 숙희)

....어서.

히데코가 고개 끄덕여주자, 무릎을 굽히고 은화를 받는 숙희. 만족스럽게 미소 짓는 백작.

32. 복도 히데코 방 앞 (낮)

하녀1이 뛰다시피 걸어와 문을 두드린다. 숙희가 안에서 문 열어주자, 간단한 얘기를 어렵게 전한다.

하녀1

후지와라 백작께서, 히데코 아가씨의 몸종 요시코를

백작님 방으로 잠깐 심부름보내기를 허락해달라고 아가씨께 여쭙습니다.

무슨 일일까, 불안한 얼굴로 히데코 돌아보는 숙희.

33. 손님방 (낮)

열린 여행가방, 막 벗어던진 옷. 턱시도로 갈아입고 보타이 매던 백작, 숙희가 들어와 인사하자 사무적으로 응한다.

숙희

부르셨습니까, 나리.

백작

음.

호기심 많은 하녀1, 마지막 순간까지 들여다보며 일부러 천천히 문을 닫는다. 문 완전히 닫히자 그동안 답답했다는 듯, 곡예사처럼 손으로 바닥을 짚고 옆으로 한 비퀴 빙그르 도는 백작. 아까 받은 은화를 내동댕이치는 숙희.

숙희

감히 나한테 가져 갔고 장난을 쳐?!

백작

(무서워하는 시늉하며)

왜 꼴을 내고 야단이람?

숙희

닥쳐요, 마귀 같은 인간...왜 이리 늦었어요?

백작

초량에선 네 애기뿐이야, 숙희가 엄마보다 큰 도둑이 될 거라고.
이제, 준비는 끝...내가 다 익었다고 신호만 보내면, 바로 돌만 있을 기회를 만들어줘.
나가 가지까지 썩 다 발라먹어버릴라니께.

숙희

개는, 남자가 젖꼭지를 잡아당겨도 뭘 하지는 건지 모를 숙맥이에요.

백작

그러니까 곁에서 네가, 뭐든지 나 때문이라고 갖다 붙이랴.
“어머, 백작님 오시고부터 발톱이 부쩍 빨리 자라시네요”,,,,이런 식으로, 알았지?
(칫, 하는 숙희에게 백작, 침대에 놓인 선물상자를 건네며)
숙맥 갖다줘...네 생각 하면서 골랐다.

윙크하는 백작. 통명스러웠던 태도를 좀 누그러뜨리면서 상자를 받아드는 숙희.

34. 히데코 방 (낮)

상자에 든 분홍색 비단구두와 카드. 감탄하는 히데코, 구두의 부드러운 비단을 볼에 대어본다.

히데코

이렇게 예쁜 거 본 적 있니, 요시코?

숙희

(소리)

머잖아 내 차지가 될 구두를 들고 좋아하는
그 딱한 녀를 보고 있자니 괜히 맘이 안 좋아졌다.

동봉된 카드를 꺼내 읽기 시작하는 히데코. 그녀 얼굴에 떠오르는 표정을 읽어보려 애쓰는 숙희.

35. 복도 (저녁)

뎡뎡- 여섯 시를 울리는 종소리. 드레스자락 사이로 보이는 히데코의 분홍 비단 구두, 바빠 움직이는 숙희의 수수한 신, 계단을 종종걸음으로 내려간다.

36. 식당 (밤)

식당 문을 여는 숙희, 히데코가 입장한다. 못마땅한 얼굴로 회중시계를 들여다보는 쿠푸즈키. 아름다운 드레스에, 비단 장갑, 보석으로 치장한 히데코, 인형처럼 아름답다. 예의 바르게 일어서 숙녀를 맞는 백작, 입이 헤벌어졌다.

백작
아, 아가씨....

히데코의 아름다움에 당황해 얼굴이 붉어지는 연기를 펼치는 백작을 관찰하며 감탄하는 숙희.

백작
(소리)
감동했다,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이렇게 오금저리도록 얼굴을 붉혀줘야....

37. [보영당] (낮) - 회상

백작
....그 같잖은 귀족년들이 우월감을 느끼면서 너한테 맘을 놓는다 이거야.
자, 봐봐....숨을 확 들이마신 담에 뱃가죽이 등에 닿도록 끌어당기고
턱은 가슴에 붙이고, 똥구멍에 최대한의 힘을 준 다음 숨을 오래 참아, 알았어?
자, 해보자....하나, 둘, 셋!

숙희의 엉덩이를 팽 치며 격려하는 백작, 숨 참는 숙희 앞에 손거울을 들이댄다. 거울 보면서 정진하는 숙희, 뒤에 딱 붙어선 백작, 거울에 머리를 들이댄다. 웃음을 겨우 참으면서 백작 얼굴을 손바닥으로 덮어 밀어내는 숙희.

38. 히데코 방 + 정원 (아침 - 밤)

밤. 발강게 상기된 불, 입술에 미소까지 띤 채 거울 앞에 선 히데코. 눈을 감고는 잠꼬대하듯이 말한다.

히데코
....포도주를 너무 마셨나봐, 백작님이 자꾸 권하는 바람에....
정말 개구지셔....

뒤에 서서 히데코의 드레스를 벗기려는 숙희. 손을 대자 히데코, 번쩍 눈을 뜨더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그 뒤의 숙희 얼굴도 본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스투크 돌아서는 히데코. 당황하는 숙희 얼굴에 비명 소리 선행 -

잠시 후 -
숙희 허리에 발을 대고 밀면서 코르셋끈을 있는 힘껏 잡아당기는 히데코. 숨막혀 얼굴 파래진 숙희.

숙희
아가씨....저 죽어요!

잠시 후 -
드레스 입고 거울 앞에 나란히 선 두 사람 둘 다, 몰라보리만큼 아름다워진 숙희를 보고 있다.

히데코
....백작님 말씀, 알 것 같아.

숙희
무슨 말씀요?

히데코
네 얼굴 말이야...자려고 누우면 꼭 생각나더라, 난?

미안하고 당황되어 얼굴 빨개지는 숙희, 히데코의 등 단추를 풀기 시작한다. 히데코도 숙희의 단추를 푼다. 번갈아 서로의 옷을 하나씩 해체시켜간다. 히데코 손이 민감한 신체부위를 스칠 때마다 소스라치곤 하지만 묘한 기분에 사로잡히면서 얼굴이 달아오르는 숙희, 그럴수록 임무를 상기하려고 노력하면서 대화를 이끈다. 그래도 눈은 자꾸 히데코의 몸 여기저기의 아름답고 우아한 곡선을 관찰한다.

숙희
아가씨는...정말 이모부한테 시집가세요?

히데코
왜?

숙희
어려서부터 자란 곳에서, 키워주신 분하고 혼인해서, 또 여기 계속 산다는 게...

히데코
그래서 나를 기르신 거야, 잡아먹으려고 병아리 키우는 것처럼.
이모부는 내 재산을 필요로 하셔.

숙희
왜요, 금광도 가지신 분이?

히데코
불란서에 유명한 수집가가 있는데, 얼마 있다 서재를 통째로 경매에 내놓는단나봐.
그거 사려면 금광 수입 갖고 안 된다.

숙희
허이구 - 나 같으면 책 팔아서 금 사지, 금 팔아서 책은 안 사겠네....
(히데코의 브래지어를 푸는 한편, 눈치 보며 슬쩍 떠보듯)
다른 분하고 혼인할 엄은 안 내보셨어요? 예를 들면...

히데코
(한 팔로 가슴을 가리더니, 갑자기 정색하고)
애, 넌 하녀치고 별 참견을 다하는구나?

뜨끔해서 열린 입 다무는 숙희를 돌려세우는 히데코, 브래지어를 풀어준다. 똑같이 가슴을 가리는 숙희.

- 아침. 창밖에서 본 히데코 얼굴, 유리에 이마를 대고 서서 정원을 내려다본다.

숙희

(소리)

아가씨는 이제 책 읽으러 가지 않았다.

히데코의 시점 - 큰 벗나무. 하인 혼자 메는 지게식 가마에 앉은 코우즈키, 책을 보며 서재로 실려간다.

- 낮. 백작이 담배를 피우며 느긋하게 서재로 걸어가는 모습을 내려다보는 히데코.

숙희

(소리)

대신 백작이 책을 만들러 갔지.

(창가에 서서 내려다보는 히데코를 관찰하는 숙희)

아가씨는 창밖을 보고, 난 아가씨를 보고...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가없고도 가없고나...저런 가짜한테 맘을 뺏기다니....

시선을 느끼고 돌아보는 히데코의 하얀 이마에 빨간 동그라미, 유리에 눌린 자국이다.

39. 응접실 + 복도 (낮)

자꾸 시계를 힐끔거리면서 수채화도구 일습을 집요하리만큼 가지런히 정리하는 히데코. 이마에 줄을 세운 채 초초한 얼굴로 거울 보면서 매무새를 다듬는 동안 뒤에 서서 바라보는 숙희. 시계가 땡땡- 두 번 울리자 고개를 핵 돌리는 히데코. 안쓰러워서 나서는 숙희. '좀 내다볼까요?' 하듯 고갯짓으로 문을 가리키는 숙희. 자존심 상하지 않을 만큼 살짝 고덕이는 히데코. 문 여는 숙희, 복도에 선 백작과 마주친다. '왜 안 들어와?'하는 숙희 눈빛, 회중시계를 들어보이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게 해'라고 말하는 백작의 몸짓. 눈 한 번 부라리고 도로 들어오는 숙희, 히데코에게 고개를 저어 보인다. 한숨 폭 쉬며 의자에 앉는 히데코. 두 사람, 그림처럼 미동도 않고 시간이 흐른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발소리 쿵쿵 울리면서 커지더니 문 열리고 백작 들어선다. 벌떡 일어서는 히데코.

잠시 후 -

탁자에 놓인 꽃병과 복숭아를 그리는 히데코. 그녀 뒤에 다가와, 고급수채화지가 부끄러울 정도로 한심한 이 그림을 보면서 몸을 낮추는 백작. 히데코의 목덜미에 백작의 숨결이 닿는다. 히데코, 몸을 살짝 뺏다.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 공책에 글씨쓰기를 하면서 그 꼴을 지켜보는 숙희. 부끄러워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묻는 히데코.

히데코

이 복숭아는 확실히...입체감 표현을 좀 더 연습해야 할까요?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그 노랑빨강 물감범벅을 복숭아로 보지는 못했겠지만 백작의 인내심은 무한하다.

백작

입체감은 뭐 조금...하지만 당신에게 단순한 기교를 능가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시는 거죠.

당신 앞에 서있기가 겁이 나네요, 속마음을 들킬까봐.

백작의 수작이 역겨워 찡그리는 숙희. 거울을 보는 히데코, 거기서 저를 보고 있는 숙희를 발견하고 얼굴을 붉힌다. 백작 역시 고개를 들어 거울 속 히데코를 본다. 히데코의 시선을 따라 숙희를 보는 백작. 숙희도 백작의 시선을 느

끼고 눈을 돌려 마주한다. 갑자기 벌떡 일어서는 백작, 탁자로 걸어가더니 복숭아를 집어든다.

백작

오늘은 이쯤 하죠.

(복숭아를 한 입 베어무는 백작, 과즙이 입술과 턱에 흐른다.

숙희 앞에 서서 히데코를 보며 씹는다)

거의 다 익은 거 같아...

뚜벅뚜벅 나가버린다. 눈 크게 뜨고 침을 꿀꺽 삼키는 숙희, 생각한다. ‘올 것이 왔군...이제 어쩐다?’

40. 뒷동산 (낮)

산책하는 숙희와 히데코, 멀리 바다가 내려다보인다. 구름이 많은 하늘, 비가 올 것 같다.

히데코

넌,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어?

숙희

....저 낳고 얼마 안 돼서....동네 제일 큰 집 들보에 목이....아니, 목을...

히데코

매디셨구나, 우리 이모처럼?

숙희

예? 아...뭐 그렇죠, 하하하

호탕하게 웃는 숙희, 히데코에게는 오히려 슬픔을 견디려는 인간힘으로 보인다. 걸음을 멈추고 숙희를 안아준다.

히데코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널 많이 안아주셨을 거야, 그치?

우리 엄마 나 낳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목 졸라 죽인 거나 매한가지지.

숙희

터무니없어요, 아가씨!

히데코

아빠도 너무 슬퍼서 돌아가셨구....아빠 내가 많이 미웠을 거야.

(구름 낀 하늘을 보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숙희

(히데코의 눈물을 보고는 다가와 그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더니)

태어나는 게 잘못된 아기는 없어요.
갓난아기하고 얘기할 수만 있었어도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를 낳고 죽을 수 있어서 운이 좋았다고, 하나도 억울하지 않다고...

히데코

(눈을 깜빡이며 숙희 얼굴을 찬찬히 보다가 숙희의 두 손에 자기 손을 포개고)

정말...년....

감정이 북받치는지 말을 못 잇는다.

숙희, 아래를 보면 백작이 올라오는 모습 보인다. 숙희, 다급히 히데코를 끌어 바위에 앉히려-

숙희

잠깐만 앉아 주세요, 아가씨....버섯 따올게요.

(무슨 말이나는 듯 보는 히데코를 안심시키는 미소)

저녁에 버섯전골 잡수실 수 있게요....좋아하시잖아요, 향긋하니....

히데코

같이 가.

히데코 너머로 보이는 백작, 훨씬 가까워졌다. 일어서려는 히데코를 다시 주저앉히는 숙희, 방긋 웃으며 -

숙희

후딱 다녀올게요, 비 오기 전에.

잡을 틈도 없이 뛰어가는 숙희, 올라오는 백작과 마주친다. 반갑게 어깨를 어루만지는 손길을 확 뿌리치고 내려가는 숙희. 어깨 한번 으쓱하고 가던 길 가는 백작. 숙희, 맘이 바뀌었는지 걸음을 멈춘다. 돌아와 나무 뒤에 숨는다. 백작이 벌써 히데코를 만나 수작 거는 꼴을 훑쳐본다. 숙희 어깨에 빗방울이 똑.

41. 응접실 밖 (낮)

비 내린다. 숙희의 시점 - 저택의 어느 창으로 다가간다. 낮인데도 불 켜놓은 실내를 들여다본다. 담요 두른 히데코와 맞은편의 백작,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미신다. 옆자리로 온 백작이 나란히 앉아 뭐라고 떠들자 수줍게 소파 끝으로 옮겨 앉는 히데코. 다시 바짝 붙는 백작, 고개 숙인 히데코의 손을 한사코 붙든다. 뭐가 그리 좋은지 껄껄 웃는다. 턱과 머리카락에서 물을 뚝뚝 흘리는 숙희, 밖에 서서 하염없이 들여다본다.

42. 응접실 (낮)

숙희, 들어선다. 앞치마에는 젖은 송이버섯 한 움큼. 언제 옮겼는지 백작에게서 멀쩡이 떨어져 앉은 히데코, 숙희 눈을 바로 못 본다. 따뜻하고 보송보송한 히데코와 백작을 바라보는 숙희.

숙희

죄송해요, 아가씨....비가 와서 길이 잘 안 보였어요.

히데코

괜찮아, 백작님 덕에 무사히 왔으니까.

(백작의 집에 차를 따라준다. 그 틈을 타 숙희에게, "잘했어"하는 입 모양 만들어 보이는 백작.

히데코, 숙희의 흉투성이 맨발을 발견하고 놀라)

너, 신 또 어쨌어?

숙희

(품에서 마른 신을 꺼내 보이며, 부끄러워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못쓰게 될까봐... 아가씨가 주신 건데...

할 말을 잃는 히데코. 두 여자를 번갈아 보며 미간을 찌푸리는 백작.

잠시 후 -

꽃병과 사과를 그리는 히데코. 백작이 뒤에서 히데코의 붓 진 손을 잡고 움직여주면서 귀에 바짝 대고 말한다.

백작

팔에 힘을 빼세요...부드럽게...

히데코

(얼굴 조금 뒤로 돌리고 속삭인다)

저, 좀만 뒤로...

백작

(더 다가가 앉으며)

아직도 힘을 너무 켜어요.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움직이는...

민망해진 히데코가 눈치를 주자 백작, 돌아본다. 공책과 펜을 든 숙희가 뒤에 앉아, 무서우리만큼 빤히 보고 있다.

43. 정원 (낮)

이젤과 도화지, 물감과 붓, 물통까지 이고 들고 걷는 숙희, 제 앞의 백작과 히데코를 밟살스럽다는 듯 노려본다.

이상하리만큼 히데코 뒤에 바짝 붙어 걸던 백작, 뭔가 생각났다는 듯 돌아본다.

백작

요시코, 수채화물감 가져왔지?

숙희

(애써 싹싹하게)

그럼요, 나리!

백작

유화물감으로 바꿔다줄래?

모처럼 맑은 날인데, 유화를 그려야지!

어이없어하는 숙희, 온 길을 돌아본다. 저택이 멀다. 숙희를 돌아보는 히데코, 얼굴에 스치는 불안.

44. 계단 (낮)

짐 들고 뛰어 내려오는 숙희. 화구가방 끈이 떨어지면서 바닥에 유화 물감들 흩어진다.

숙희
이런 니미털 -

45. 뒷동산 (낮)

양손 양어깨에 짐 진 숙희, 뒤통거리며 산길 오른다. 산발한 채 땀 범벅된 얼굴, 절망적인 얼굴로 숲 속을 뒤횔다.

숙희
아가씨! 나리!

잠시 후 -

숙희의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하다. 나무 뒤에 숨은 숙희의 시점 - 그 주위로만 나무가 없어 스포트라이트처럼 햇빛 쏟아지는 너럭바위에 앉은 백작과 히데코, 두 사람의 겹쳐진 입술. 히데코의 목과 어깨를 쓰다듬는 백작의 손길. 기모노 사이로 드러난 히데코의 허벅지가 눈부시게 희다. 히데코와 숙희의 기쁜 숨. 신음하듯 부르는 숙희.

숙희
아가씨....

히데코, 숙희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백작에게서 몸을 떼다. 멍한 눈길. 눈 마주치자 몸을 돌려 도망치는 숙희, 물감과 붓 같은 것들이 투두투 떨어지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벌떡 일어서는 히데코.

46. 숙희 방 (밤)

등 맞대고 모로 누운 숙희와 히데코, 둘 다 말뚱말뚱.

히데코
그 분이 청혼하셨어.
(움찔하지만 대꾸하지 않는 숙희)
다음 보름께 이모부가 함경도 가신 틈을 타서 달아나겠어, 고베로.

숙희
...아가씨는 뭐라셨어요?

히데코
모르겠다고 했어.

숙희

왜요?

히데코
무서워서.

숙희
이모부 노염이요?

히데코
....무서워, 백작님이.

숙희
뭐가 무서우세요, 그렇게 친절하신 분이데.

히데코
(몸을 돌려 숙희를 향해 누워서)
저 말이야...솔직히 말해줘.
(뭔가 눈치 채인 게 아닌가 긴장한 숙희, 히데코를 향해 돌아눕는다.
히데코, 수줍게 눈길을 돌리면서 숙희 귀에 대고 속삭인다)
....남자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뭐야?

숙희
예에?

히데코
내 말은....그러니까 결혼하면....밤에....말이야...
(숙희의 어이없어하는 표정을 보고)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엄마도 없고, 여기는 아무도...
....먼저 입을 맞추겠지?
(끄덕이는 숙희)

그리고?

숙희
품에 안지요.

히데코
서서?

숙희
누울 데가 없거나 서둘러야 할 경우에만 그러구요.
보통은 침대나 이부자리 같은 데서....
....무작정 해보시면 이내 알아요, 술을 처음 먹는 거나 매일반이어요.

히데코

혹시...눈 있어도 못 보는 장님처럼, 그걸 느낄 수 없는 사람도 있을까?

숙희

당연히 느끼실 수 있고말고요!

(손을 뺀어 막대사탕을 꺼낸다. 혀와 입술로 정성껏 핥더니)

보셔요....

눈을 동그랗게 뜬 히데코 입술에 제 입술을 슬며시 가져다대는 숙희. 히데코, 저도 모르게 스르르 눈을 감는다. 숨을 깊게 쉬고 침을 삼킨다. 제 입술에 묻은 사탕물을 혀로 핥는 히데코. 반응이 만족스러운 듯 히데코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며 다시 한 번, 조금 더 오래 입 맞추는 숙희. 히데코, 아예 숙희의 입술을 아래위로 핥으면서 속삭인다.

히데코

넌 어떻게 알아? 적잖이 해본게지?

숙희

끝단이라고, 친구가 알려줬어요.

히데코

알려줘? 말로?

숙희

예, 다 말로....

이만 몸을 떼려는데 덩벼드는 히데코, 적극적으로 숙희의 입술을 탐하기 시작한다.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는 숙희, 점점 빠져든다. 숙희의 혀를 빨아들이는 히데코. 숙희, 신음이 한숨처럼 흘러나온다.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히데코에게서 입술을 떼어내는 숙희. 놀란 눈, 전력질주한 것처럼 가쁜 숨. 천천히 눈을 뜨는 히데코, 숙희를 본다. 그 눈에 서린 기쁘고 두려운 기색. 숙희,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갈라지는 목소리로 -

숙희

느껴지세요?

히데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듯 손을 가슴에 올리며)

이런 거구나.

숙희

그게 바로 백작님을 바라는 느낌이에요.

히데코

정말?

숙희

접먹지 마셔요, 백작님은 정말...

(떨리는 손으로 히데코의 목덜미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선을 쓰다듬으며)
...아가씨를 만지고 싶으실 거예요.

히데코
시체하고 교접하는 기분이라고 하지 않으실까? 알잖아, 난 손이 차서....

숙희
그런가...?

히데코
(허락도 없이 숙희 옷 속으로 손을 쑥 넣어 젖가슴을 만지며)
봐...

숙희
(헉 - 하고 숨을 들이키더니 부끄러워하며)
진...시원한 게, 좋기만 한 걸요?

히데코
좋아? 나도 해줘, 정말 좋은지 알고 싶어.

숙희
(옷 위로 히데코 가슴을 어루만지며)
백작님도, 필경 이렇게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히데코, 자기 옷 앞섶을 푼다. 히얀 가슴이 드러나자 한숨 쉬는 숙희)
아...너무 예뻐요, 백작님은 정말 아가씨의 이걸 보시면...

히데코의 젖꼭지를 만지작거리더니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대는 숙희. 히데코, 몸을 뒤틀며 발끝에 힘을 준다.

히데코
그 분이 정말 이렇게 살살 해주실까, 숙희야?

숙희
(히데코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으며)
그럼요, 그리고 또 백작님은 이렇게...이렇게...

히데코
(숙희의 옷을 거칠게 벗기더니 그녀의 어깨를 깨물며)
아...숙희야...계속해줘, 백작님처럼...

숙희
(히데코의 다리 사이를 어루만지며)
백작님은...백작님은...무척이나 요걸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정말 부드럽고 따뜻하고...촉촉하군요
(갑자기 쑥 내려가 히데코의 다리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갈라진 틈 속엔 진짜 맛있는 게 들었을 듯도 한데요?”

히데코가 부끄러워 몸부림치는 바람에 오히려 숙희의 입술이 히데코의 예민한 곳에 닿게 된다. 저도 모르게 히데코의 몸이 활처럼 휜다. 본격적으로 애무하기 시작하는 숙희.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 어쩔 줄 몰라 하는 히데코.

숙희

....더....가르쳐....드릴까요....아가씨?

히데코

(가쁜 숨을 쉬며)

응, 응...해줘...다 가르쳐줘...

이 씬은 숙희와 히데코의 얼굴과 손 클로즈업으로만 구성된다.

47. 응접실 (낮)

창가에 앉아 글씨쓰기 연습하는 숙희. 숙희에게서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 각자 이젤을 놓고 나란히 앉은 히데코와 백작, 숙희의 옆모습을 스케치한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백작과 히데코가 그리는 그림을 보지 못한다.

일어나 히데코 뒤로 가까이 다가서는 백작, 어깨너머로 팔을 뻗어 연필을 함께 잡는다. 두 사람의 겹치는 손.

얼굴 빨개지는 히데코, 한숨을 쉬지만 손을 빼지 않는다. 두 사람을 보려고 살짝 고개 돌리는 숙희.

백작

어허- 모델이 움직이어서야 쓰나.

얼른 눈 돌려 글씨쓰기로 돌아오는 숙희, 이미에 날을 세우고 노력한다. 공책 클로즈업 - 맨 윗줄에는 히데코가 써 준 예쁜 글씨, 아래부터는 숙희가 힘주어 또박또박 그린 한글. ‘남숙희, 히데코 코우즈키, 엄마, 아빠’. 예민해진 숙희의 귀에 들리는 소리들 - 도화지를 거칠게 스치는 연필심, 두 사람 옷의 마찰, 삐걱대는 의자 등받이, 바닥에 끌리는 의자, 점점 가빠지는 남녀의 호흡. 입술을 깨물며 참던 숙희, 갑자기 연필 내던지는 소리에 또 돌아보고 만다.

히데코

그만, 그만요 못하겠어요

벌떡 일어서는 숙희. 히데코 옷에서 손 빼는 백작, 이젤 너머 노려본다. 숙희를 올려다보는 히데코의 비참한 눈빛.

백작

....이리 와 볼래, 요시코?

(걸어오는 숙희에게 은화를 건네며)

다른 데서 일을 찾아보는 게 어때, 무슨 말인지 알지?

숙희를 바라보는 히데코, 불안과 애원이 뒤섞인 느낌. 숙희, 은화는 받지 않지만 나가려고 몸을 돌린다. 히데코, 절망적인 모습으로 입술을 파르르 떤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돌아서는 숙희. 백작, 숙희를 향해 다시 은화 내민다.

숙희

다른 데 할 일은 없어요, 제 일은 아가씨 보살피는 거잖아요.

안도하며 고마워하는 히데코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숙희, 제자리에 돌아가 글씨연습을 계속한다.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히데코. 숙희를 노려보는 백작의 노여운 얼굴, 그 시선을 애써 무시하는 숙희.

48. 뒤뜰 (밤)

건물 옆 어두운 구석, 거칠게 숙희의 어깨를 잡아 흔드는 백작. 분노와 안타까움이 들끓는 목소리로 으르렁댄다.

백작

씹지도 못하고 뱉었잖아, 너 때문에!

(어린이처럼 발까지 동동 구르며)

다 익었는데, 다 익었는데. 요번 보름 놓치면 다 끝장인데!

(숙희에게 거칠게 입 맞추더니, 숙희 손을 끌어다 제 아랫도리에 댄다)

알겠어,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

좃같은 쓰레기더미에서 어떻게든 내 인생을 구해내려고 얼마나 분투했는데...

내가 그걸 망치도록 구경만 할 것 같아, 이 쌍년야?

(몸을 뒤틀며 가쁜 숨 내쉬는 숙희를 노려보며)

...아가씨께, 요시코는 하녀도 빛도 아니고

소매치기나 하던 도둑년 딸이라고 다시 소개해볼까?

숙희

옳거니! 좋지, 좋아! 대신 나도 한 마디 해주고 응?

네 높은 화족도 빛도 아니라고! 주머니에 짤랑거리는 은화도 죄...

남은 한 손으로 숙희 뒤통수를 짝 잡는 백작, 자기 사타구니에 댄 숙희 손을 막 비비면서 눈물까지 글썽해서서 -

백작

숙희야, 숙희야....[보영당] 식구들을 생각해...

허리도 성찮은데 한 팔로 아기들 시중들며 늙어가는 복순씨하며, 그 팔꾼이들.

너만 바라고 있던데....빈손으로 가봐, 얼마나 실망들 하겠니....급의환향해야지!

숙희

(식식거리다 좀 누그러지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백작의 손을 뿌리치며)

그러니까....히데코를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라구.

천지간에 아무도 없는 애야....그러다 겁먹으면 조잡지 꼬옥 오므려버릴걸?

그리고...다시는 그 애기 장난감 같은 좃대가리에 내 손 갖다 대지 말아줘!

획 돌아서 가버리는 숙희. 백작, 대꾸도 못한 채 입만 딱 벌어진다.

49. 히데코 침실 (밤)

히데코의 파리한 맨발을 양손으로 정성껏 비비고 주무르는 숙희, 혼잣말처럼, 그러나 히데코 들리게 증얼거린다.

숙희

이렇게 걸핏하면 쥐가 나서야 원...야반도주고 뭐고...

어머...백작님 오시고부터 발톱이 부쩍 빨리 자라시네...뭘 조환가 몰라?
...아가씨는 이렇게 사는 거, 괜찮아요?

히데코
뭐가?

숙희
(이제야 눈 들어 히데코를 보면서)
큰 바다에 얼마나 많은 배들이 오고가는지...
떠나는 이, 돌아오는 이, 보내는 이, 맞아주는 이...얼마나 시덥잖은 일에 웃고 울고들 하는지...
그런 거 하나도 못 보고 사는 게 아가씨는 좋아요?
제가 어디고 따라다니면서 함께 좋은 구경도 하고 맛난 것도 먹고 할 텐데...

자기를 지긋이 바라보는 히데코의 시선이 너무도 괴롭지만 이를 악물고 설득하는 말을 쏟아내는 숙희.

히데코
이모부가 얼마나 그악스런 사람인지 넌 몰라.
내가 어디로 도망가든 끝까지 쫓아올 거야, 그리고 난...죽 이 모양으로 살아왔잖아.
이대로도 괜찮을 것 같아...너만 같이 있어준다면...
(조금 부끄러워하며)
같이 걷고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손발도 만져주고...

탐색하듯 숙희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히데코. 입술 깨무는 숙희, 맘을 애써 독하게 먹는다.

숙희
아가씨는 운이 좋으세요, 아가씨를 사랑하는 남자가
아가씨를 지켜줄 힘까지 가졌잖아요...그런 일은 흔치 않아요.

히데코
(이해를 바라는 간절한 눈빛으로)
하지만 난...모르겠어,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지...

숙희
(결단을 내리듯)
...사랑하세요

벌떡 일어나 앉는 히데코, 약이 오르는 모양이다.

히데코
네가 어떻게 알아?

숙희
(자신 없이)
요사이 말도 없어지고...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시고...

자다가도 돌아누워 한숨 쉬시고... 발톱도...

히데코

그게, 내가 그 분을 사랑한다는 뜻이야?

숙희

네.

히데코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라도...내가 사랑이 아니라고 해도...

그 분이 아니라... 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뜨끔 하는 숙희)

넌 내가 그 분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

쉽게 입을 떼지 못하는 숙희. 대답을 재촉하듯 숙희를 바라보는 히데코의 눈에 물기가 차오른다.

숙희

네...

(확신하는 척)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찰싹. 숙희 뺨을 때리는 히데코. 깜짝 놀라 보는 숙희. 찰싹, 찰싹, 찰싹. 히데코 눈에서 눈물이 쭉 밀려나온다. 성난 눈, 꼭 다문 입, 딴 사람 같다. 벌떡 일어서는 히데코, 어리둥절한 숙희를 강제로 일으키더니 다짜고짜 밀어붙인다. 방을 가로질러 밀어대는 히데코, 벽장 같은 숙희의 방으로 집어넣고 문을 꽁 닫는다.

50. 숙희의 방 (밤)

어깨를 늘어뜨리고 어둠 속에 앉은 숙희. 밖에서 멀어져가는 히데코의 발소리, 숙희 자신의 싹싹거리는 숨소리. 가 방에서 탈바가지지를 꺼내 쓰는 숙희, 꼼짝 않고 앉아있노라니 턱 끝으로 눈물이 툭툭 떨어진다.

숙희

(소리)

아가씨는 청혼을 받아들였다, 날 데려간다는 조건으로

51. 코우즈키 저택 앞 (낮)

자동차 안에 앉은 백작, 모자챙을 살짝 들어 인사한다.

저택 전면을 향해 벌은 진입로, 차가 달려와 빠져나간다. 현관에 선 코우즈키, 히데코, 숙희와 하인 무리.

숙희

(소리)

코우즈키 영감이 함경도로 떠나기 전날이었다.

(곧바로 다음 차가 들어와 멈춰선다.
코이즈키와 가토 집사가 뚜벅뚜벅 걸어가 차에 탄다)
백작은 먼저 떠나는 시늉만 하고 저택 주변에 숨어있기로 했다.

깊숙이 몸을 숙여 인사하는 히데코와 사사키 부인과 하인들. 차 안의 코우즈키, 앞만 바라보며 출발을 지시한다.

52. 히데코 침실 (낮)

옷장 앞에 선 숙희, 필요한 옷을 망설임 없이 척척 꺼낸다. 서랍을 열어 장갑을 스무 켤레쯤 골라내는 숙희. 보석함의 패물들을 챙겨 손수건에 싸는 숙희, 히데코 어머니의 초상화가 든 로켓도 넣는다.

숙희

(소리)

히데코 짐은, 그러니까 내 짐은... 금방 썼다, 갖고 싶은 것들은 처음부터 골라줬으니까.

(돌아보면 정신 놓고 창가에 앉은 히데코)

히데코 짐이야 최소한으로만 썼고.

어차피 정신병원이란, 정신만 챙겨가면 되는 데 아닌가...?

신장 앞에 선 숙희, 백작이 선물한 분홍구두를 포함해서 필요한 신들을 척척 꺼낸다.

53. 정원 (밤)

바쁘게 움직이는 다리 네 개. 멀리 저택이 시커멓게 보인다. 큰 가방 하나씩 들고 정원을 가로지르는 숙희와 히데코. 재계 걸으면서도 자꾸 뒤돌아보는 히데코의 손을 잡아끄는 숙희. 이상하게도 둘 다 머리 꼴이 엉망이다.

54. 강 (밤)

물안개 자욱한 강가에 선 숙희, 히데코의 머리를 매만져준다. 저쪽에서 노 저어 오는 작은 배 보인다.

잠시 후 -

백작이 노 저어 물살 헤집는 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뱃머리가 안개를 밀어내며 나아간다. 숙희, 강물에 손수건을 적셔 히데코 뺨의 눈물자국을 닦아준다. 가만히 얼굴을 맡기고 앉았던 히데코, 숙희에게 똑같이 해준다.

55. 관부연락선 갑판 (저녁)

하늘이 시뻘겋게 물들었다. 뱃전에 기대 선 셋, 히데코를 가운데 두고 숙희와 백작이 좌우로. 부산이 멀어진다. 히데코의 오른손을 가져다 팔짱을 끼는 백작. 왼손을 움직여 숙희 손을 몰래 잡는 히데코. 백작을 보는 숙희. 쿵쿵쿵- 누군가 갑판을 뛰어오는 소리. 흠칫 놀라며 낮게 비명까지 지르는 히데코, 백작 팔에 매달리며 핵 돌아본다. 일행 뒤로 뛰어가는 일본군 장교. 히데코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린다. 몸을 기울여 속삭이는 백작.

백작

이모부가 금광까지 가는 데만 꼬박 사흘이예요.

아까씨 도망갔다고 사사키 부인이 전보를 친대봐야, 도착을 해야 전보를 받겠지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또 사흘, 이 배 뒀다는 걸 운 좋게 알아냈다고 쳐도
우리가 시모노세키에서 또 어디로 뿔지 알아낼 도리는 없어요.

히데코
(손 내밀며)
지금 주세요, 그 약.

가방에서 푸른색 물약이 든 작은 병을 꺼내 히데코 손에 올려놓는 백작. 영문을 몰라 기웃거리는 숙희.

56. 기차 객실 (밤)

달리는 기차에 탄 백작, 맞은편 두 여자를 보며 한숨 쉰다. 바싹 붙어 앉은 숙희와 히데코, 꼭 깎지 낀 손.

57. 신사 앞 (밤)

차가 못 들어오는 산길을 큰 트렁크를 들고 끄끙거리며 걸어오는 백작과 숙희, 작은 핸드백만 든 히데코가 따라온다. 길 끝에, 허물어져가는 도리이(신사의 정문)가 보인다.

58. 신사 (밤)

머뭇거리며 백작을 따라가는 숙희와 히데코. 돌아보며 변명하듯 웅얼거리는 백작.

백작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렇게 하객 없이 하는 예식을 ‘영국식 결혼’이라고 불렀죠.

장사치처럼 생긴 신관과 료칸 여주인이 나와 맞는다. 백작, 초조하게 사람들을 돌아보며 서두른다.

백작
시작할까요?

숙희
잠깐만요, 이렇게 입고 결혼한다고요?

어이없어 하며 숙희를 보는 백작. 고집스런 눈을 하고 당돌하게 마주보는 숙희. 답답한 마음에 히데코를 돌아보는 백작. 그러나 히데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섰을 뿐이다. ‘웃기고 있어...’, 허뚱 눈길을 주고받는 신관과 료칸 여주인. 어쩔 수 없다는 듯 물러서는 백작, 어금니를 짹 물고 곁에 선 숙희에게 속삭인다.

백작
왕관이라도 씌우겠다는 거야, 지금?

조선말은 못 알아듣는다는 듯, 무시하는 숙희.

59. 구석방 (밤)

어둡고 눅눅한 창고 같은 방에서 히데코에게 후리소데 입히는 숙희, 이제는 숙달된 민첩하고 정확한 동작. 여기저기 거미 때문에 겁이 나지만 불평 한 마디 없는 히데코, 아이처럼 진지한 얼굴로 -

히데코
너도 좋은 옷 입어야 해.

숙희, 고개 끄덕끄덕.

60. 배전拜殿 (밤)

전통혼례가 거행된다. 다 쓰러져가는 신사에서, 한밤중에, 세수도 안 한 것 같은 신관의 주례 하에, 하객이라고는 천한 인상의 료칸 여주인 하나 두고, 아름답게 입고 화장까지 마친 히데코와, 턱시도 차림의 백작. 좋은 기모노 입고 히데코 뒤에 서서 머리장식을 다시 잘 매민쳐주는 숙희. 백작이 히데코에게 결혼반지 끼워준다. 히데코는 씩씩하고 위엄 있게 신부의 역할을 해낸다. 숙희는 정신없이 히데코를 바라본다. 둘이 잠깐 눈이 마주칠 때, 괜찮다고 말하듯 살짝 미소 짓는 히데코. 숙희, 백작에게 시선을 돌리면 안심시켜주듯 씩 웃어주는 백작.

61. 산중의 료칸 객실 신방 (밤)

코우즈키 저택이 그리워지는 초라한 다다미방, 여주인이 신방 이부자리를 준비한다. 기막히다는 얼굴로 둘러보는 숙희에 비해, 히데코는 모든 기대를 놓아버린 듯 차분한 얼굴로 가만히 섰다. 어정쩡하게 선 백작, 미안해져서 -

백작
....호젓한 료칸을 구하느라...며칠만 좀 견뎌보세요.
요시코, 아가씨 편히 모실 수 있지? 난 담배를 좀...

백작, 어색한 자리를 피하듯 서둘러 방을 나선다. 방 가운데 앉은 히데코에게 다가오는 료칸 여주인.

여주인
제가 옷 벗는 거 도와드릴게요.

숙희
(막아서며)
저희 아가씨는 다른 사람 손닿는 것 싫어하세요.

여주인, '그러시든지' 하는 표정으로 고개 끄덕하고 나간다. 히데코의 머리장식을 뽑아주는 숙희, 가여운 듯 천천히 옷을 벗기려 한다. 히데코, 갑자기 숙희에게 입 맞춘다. 놀라는 숙희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는 히데코, 속삭인다.

히데코
도와 줘, 이따 내가 저 남자를 참을 수 있게...

히데코, 숙희 손을 잡아 제 다리 사이에 넣는다. 놀라는 숙희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히데코. 백작의

발소리 들린다. 빠르고도 진한 키스를 선사하는 숙희, 손을 뿌리치고 일어선다. 올려다보는 히데코의 슬픈 얼굴.

62. 료칸 몽타주 (아침 - 저녁)

- 아침. 숙희, 신방 문을 열면 이부자리 위에 단정치 못한 옷매무새와 헝클어진 머리로 인형처럼 멍하게 앉은 히데코, 고개 돌려 숙희를 본다. 피로 점점이 얼룩진 요.
료칸 여주인이 숙희를 슬쩍 밀치고 들어와 이부자리 정리를 시작한다, 숙희 쪽을 힐끔거리며.

숙희

(소리)

백작은 료칸 주인을 매수해서 우릴 감시했다, 달아날까 무서웠던 게지....

- 낮. 복도에서 엿듣는 료칸 여주인. 경대 앞에 앉아 일부러 머리칼을 헝클어뜨리는 히데코. 지켜보는 숙희.

숙희

국화 문양의 연한 노란색을 입으시겠어요, 학이 그려진 파란색을 입으시겠어요?

히데코

너나 입어.

숙희

아가씨도 참....

히데코

옷은 입어 뭐해? 여기선 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깨 처지는 숙희)

하녀놀이 할까, 전처럼? 재밌었잖아?

모처럼 히데코 얼굴에 화색이 돈다. 난처해하는 숙희.

잠시 후 -

복도에 선 료칸 여주인, 이상하고도 흥미롭다는 듯 안을 엿본다. 상전이 하녀 기모노를 입혀주고 있기 때문이다.

숙희

(소리)

백작은 아침에 나가 밤늦게 오곤 했다.

법적으로 결혼을 인정받고 상속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할 일이 많구나....

- 아침. 숙희가 문을 여니, 외출 준비하느라 바쁜 백작. 엉망이 된 이부자리에 헝클어진 머리로 멍하니 앉은 히데코, 초점 없는 눈. 울상이 되는 숙희.

- 저녁. 좁은 마당에 부슬비가 내린다. 단정치 못한 차림으로 오동나무 옆에 선 히데코, 우산을 들었다. 들었는데 거꾸로 들었다. 손잡이 자루가 하늘을 향했으니 우산은 오목한 그릇이 되었다. 마루에 앉아 그 꼴을 보며 우는 숙희, 무표정한 얼굴에 눈물이 줄줄 흐른다. 두 여자를 번갈아 보며 어이없어 하는 료칸 주인. 외출했다 돌아온 백작

이 기가 막혀 우뚝 선다. 공손히 허리 굽혀 인사하는 히데코, 우산에 고인 물이 앞으로 쏟아진다. 백작, 들고 온 대형 보스턴백을 마루에 놓더니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히데코를 본다. 히데코, 숙희를 돌아본다. 숙희, 백작을 건너다본다. 백작, 숙희를 바라본다. 우산을 버리고 다가온 히데코, 보스턴백을 연다. 살짝 드러난 지폐, 문지, 통장, 채권더미를 훑듯 바라보는 숙희. 목적을 이루었는데도 숙희의 얼굴은 밝지 않다.

63. 료칸 앞 (낮)

허름하기 짝이 없는 외딴 료칸에 자동차가 도착한다. 양복 입은 두 남자가 내린다. 백작이 맞이한다.

64. 숙희 객실 (낮)

히데코의 파랑 기모노를 입은 숙희, 히데코의 패물들을 들어 햇빛에 비춰본다. 이미에 줄을 세우고 심각한 얼굴. 문 열리는 소리. 숙희, 일어서고 백작이 양복쟁이들을 데리고 들어온다. 양복쟁이들이 패물을 유심히 본다.

백작

(양복쟁이들을 등지고, 낮고 빠른 말투로)

정신병원 의사들이야, 히데코에겐 내 친구라고 했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알지?

잠시 후 -

키와 생김새가 비슷한 의사1, 2와 마주 앉은 숙희. 긴장했는지 침을 꿀꺽 삼킨다. 고개 돌려 창밖을 보면, 좁은 마당에 서서 오동나무를 들여다보는 히데코. 의사1, 히데코를 가리키며 묻는다.

의사1

저 사람이 누구니까?

숙희

후지외라 백작부인입니다, 결혼 전에는 코우즈키 히데코 이가씨였어요.

의사2

(동료와 눈빛 주고받더니 노트에 적으며)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숙희

마님의 하녀입니다.

의사1

(고개 끄덕이며 노트에 적는다)

이름이...?

숙희

요시코입니다.

서로를 흘끗 보는 두 의사.

의사2
사람들이 그렇게 당신을 부르나요?

숙희
네.

의사1
좋아요, 그러면 요시코양은 마님을 위해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말문이 턱 막히는 숙희, 망설인다. 복도에 선 백작이 문틈으로 강렬한 눈빛을 쏘아 보낸다. 히데코를 돌아보는 숙희, 이윽고 굳게 결심하고 단호하게, 외운 대로 -

숙희
아무도 마님을 다치게 할 수 없고, 마님이 아무도 다치게 할 수 없는 곳에
가둬놓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65. 자동차 (낮)

흔들흔들 달리는 차 내부.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수수한 기모노를 입은 히데코, 창밖을 내다본다. 가운데 앉은 백작, 앞만 본다. 숙희, 걱정스런 얼굴로 백작 너머 히데코를 살핀다.

백작
몇 가지 검사만 받고, 저녁은 [평화호텔] 가서 양갈비 먹읍시다.

히데코, 돌아본다. 유리에 이마가 눌러 생긴 빨간 동그라미를 보고 그만 픽 웃는 숙희. 눈에는 눈물, 입가엔 미소.

66. 정신병원 앞 (낮)

자동차 도착한다. 흰 가운 입은 의사1, 2와 그들보다 더 크고 거칠어 보이는 여간호사1, 2가 나란히 서서 기다린다. 먼저 내린 백작, 숙희 손을 잡고 하차를 도우며 속삭인다.

백작
다 됐어, 고생 많았다.

히데코는 혼자 내린다. 경직된 히데코에게 귀엣말하는 백작.

백작
집내지 마시길...

그러나 겁먹은 얼굴로 창마다 쇠창살이 달린 건물을 올려다보는 히데코. 그녀 얼굴을 쓰다듬는 숙희, 이별의 순간에 도달하자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기로 한 모양이다. 히데코를 얼싸안는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가오자 몸

을 떼다. 숙희에게 말 거는 의사1.

의사1

안녕하세요, 백작부인? 저 기억하시죠?

(숙희는 슬픈 얼굴로 히데코를 돌아본다. 히데코, 대답을 하라는 듯 숙희를 본다)

....부인?

숙희, 백작과 두 의사를 차례로 돌아본다. 잠시 정적. 어리둥절해서 꼼짝 않고 선 숙희. 간호사1과 2, 숙희를 향해 다가온다. 숙희의 팔을 잡아 데리고 들어가려 한다. 확 뿌리치면서 표독스럽게 대드는 숙희.

숙희

무슨 짓이에요, 이게?

의사1

부인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돌보려는 겁니다....

숙희

사람 잘못 보셨어요.

백작부인은 저 분이라고요.... 백작님, 말해주세요!

의사2

(백작을 향해, 안타깝다는 듯)

아직도 자기를 조선인 하녀라고 생각하고 있군요?

백작

조선인 유모 손에 오래 자란 탓에...

숙희

(울부짖으며)

이 나쁜 새끼!

(어깨를 짊어 잡는 간호사들에게)

이런 망할! 이런 더러운....! 으아!

의사2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부인.

백작 옆에 선 히데코를 돌아보는, 핏발 선 숙희의 눈. 히데코, 겁먹은 눈망울에 그렇그렇 멧힌 이슬.

숙희

아가씨!

히데코

불쌍한 우리 아가씨.... 완전히 돌아버리셨어요....

(주머니에서 가문의 문장이 그려진 로켓 꺼내더니 의사1에게 내민다)

혹시 도움이 될지...제일 소중히 하시던 어머니 유품이에요, 제정신이셨을 때...

로켓을 받아 열어보는 의사1, 고개 끄덕인다.

의사1

하녀는 이리도 사려 깊건만...

숙희에게도 보여준다. 로켓 안에 끼워진 그림은, 히데코의 어머니가 아니다. 숙희와 똑 닮은 젊은 여인으로 바뀌어 있다. 의사1이 손짓하자, 울부짖는 숙희를 끌고가는 간호사들. 의사들, 백작과 히데코에게 인사하고 따라 들어간다.

숙희

(소리)

당신은 히데코를 숙맥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하하, 숙맥이라니...
우리 히데코 아가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그 분은 처음부터 그냥...
...나쁜 년이었다.

숙희를 지켜보며 슬픈 표정을 연기하는 히데코의 얼굴이 정지된다. 떠오르는 소제목 - '第二部 : 히데코 이야기'.

67. 코우즈키 저택 다실 (밤)

5세 히데코가 - 정신병원에서의 숙희처럼 - 울부짖으며 몸부림을 친다.

현재보다 열 살 이상 젊은 사사키 부인이 뒤에서 꼭 끌어안고 있지만 요란한 발길질을 감당하기 힘들어 보인다.

5세 히데코

나쁜 년 아니야 나쁜 년 아냐

그만큼 젊은 코우즈키가 맞은편에 앉아 흥미롭다는 듯 아이를 꼼꼼히 살피다가 주머니에서, 비단끈에 왕사탕만한 쇠구슬들이 줄줄이 엮인 문진을 꺼낸다. 구슬 하나를 뽑아 건넨다. 발버둥을 멈추는 5세 히데코.

코우즈키

입에 넣어라, 히데코

(사탕인 줄 알고 냉큼 입에 받아 넣는 히데코)

손 내밀어라.

또 줄줄 알고 얼른 손 내밀자마자 손가락의 어린 관절 부분에 쇠구슬 문진을 힘껏 내리치는 코우즈키. 깜짝 놀라 손 빼는 히데코, 입 속의 쇠구슬 때문에 비명도 못 지른다. 코우즈키, 사사키 부인에게 손짓해 히데코의 손을 잡아 다시 내밀게 한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확히 관절 부분을 가격하는 코우즈키. 침을 질질 흘리며 황망하고 겁에 질린 눈으로 코우즈키를 바라보는 히데코, 주먹을 꼭 친다. 코우즈키가 고개를 끄덕이자 손을 놓아주는 사사키 부인. 코우즈키, 비단 수건을 꺼내 쇠구슬에 묻은 피를 닦아낸다.

화면 넓어지면 코우즈키 옆에 앉은 아내, 히데코의 이모가 소개된다. 녀트 나간 듯 공허한 눈을 가진 바삭 마른 여자.

성인 히데코

(소리)

엄마가 죽고 또, 아빠가 죽고...난 조선에 있는 이모네로 보내졌다.

코우즈키

다시 말대답이 하고 싶을 때는 먼저 그 쇠구슬 맛부터 떠올려보렴.

입가에 침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이모와 이모부를 노려보는 히데코.

68. 히데코 방 (밤)

문 열고 들어오는 사사키 부인. 따라 들어오는 히데코, 협탁에 등롱을 올려놓는 사사키 부인. 히데코, 한 걸음 다가 서더니 안아달라는 듯 두 팔을 벌려 내민다.

사사키 부인

혼자 주무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울상 짓는 히데코)

몸이 야차만 한 남자가 있는데, 소리치고도 계집아이 우는소리를 제일 못 견뎌 해요.
시끄럽게 굴면 그 남자는 성이 나서 저 문을 열고 쫓아올 걸요?

구석의 벽장 같은 방을 가리킨다. 훗날 숙희가 쓰게 되는 하녀 방이다. 겁에 질린 히데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

5세 히데코

와서요?

사사키 부인

큰 몸으로 아기씨를 덮쳐 눌러버리죠, 아무 소리도 못 내게.

마침 그 문이 끼익 열린다. 히데코와 사사키 부인, 함께 비명을 지른다. 방 안 어둠에서 걸어 나오는 이모.

이모

쯔쯔쯔, 다섯 살짜리한테 겁이나 주고....

5세 히데코

이모!

사사키 부인, 이모를 노려보다가 도망치듯 나간다. 무서워하는 조카에게 다가와 손에 든 목걸이를 툭 늘어뜨려 보여 주는 이모, 금줄에 달린 로켓의 뚜껑을 열자 히데코 엄마의 초상화가 보인다. 히데코 손에 목걸이를 넘기더니 -

이모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 하는 히데코)

고와, 나도? 말해봐....

(자세히 보라는 듯 무릎 꿇고 앉아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꼼짝 않는 이모)

다들 그러던데...난 언니만 못 하다고

5세 히데코

고와요

흡족한 답을 얻었는지, 숙 일어나 인사도 없이 가버리는 이모. 손에 남겨진 엄마 초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히데코.

이모
(소리)
낮...밤...남자...여자...

69. 서재 (낮)

5세 히데코
낮...밤...남자...여자...

작은 의자에 앉아 책 읽는 어린 아이 뒷모습. 분홍색 얇은 염소가죽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긴다. 옆에는 이모가 앉아 가르쳐준다. 간단한 삽화에 글씨가 곁들여진 책장이 넘어간다.

이모
눈...코...입...귀...어깨...젖꼭지...배꼽...

5세 히데코
눈...코...입...귀...어깨...젖꼭지...배꼽...

이모
자지, 보지.

모르는 단어라 못 따라하는 히데코. 맞은편에 앉은 코우즈키, 혀에 펜촉을 댔다 뺐다 하며 색안경 너머로 지켜본다.

성인 히데코
(소리)
글은 이모가 가르쳤고..

5세 히데코
(더듬으며)
자, 자지, 보...지...

킁킁 웃는 이모. 마주 보고 웃는 히데코. 이모와 히데코의 뺨에 차례로 길다란 쇠자가 날아든다. 놀란 눈으로 코우즈키를 바라보는 히데코. 재빨리 얼굴의 미소를 지워버리는 이모.

성인 히데코
(소리)
이모부는 버르장머리를 가르쳤다.

70. 히데코 방 (낮)

웃 입혀주는 하녀1의 따귀를, 손거울로 찰싹 때리는 8세 히데코. 뺨을 감싸쥐며 물러서는 하녀. 히데코, 다가가 하

녀의 다른 쪽 따귀도 갈기려 하는데 히데코의 손목을 붙잡는 사사키 부인.

성인 히데코

(소리)

나는 열 대를 맞으면 스무 대를 때리는 애였다.

(히데코, 몸부림치며 손을 빼더니 사사키 부인의 뺨도 때린다.

불꽃이 이는 눈으로 내려다보는 사사키 부인)

남이 나보다 아파 보이면 사는 게 그러저럭 견딜 만했다.

71. 서재 몽타주1 (밤 - 낮)

코우즈키가 세차게 내리친 말총 채찍이 히데코의 등을 때린다. 사사키 부인, 흐뭇한 웃음을 참느라 애쓴다.

코우즈키

네가 조금은 미쳤다는 걸 난 알지, 모계에 그런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아내를 힐끗 돌아보는 코우즈키, 무표정으로 눈은 천장을 향해 치켜뜬 이모)

그래서 혼란시키려는 거야,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도록.

안 되면 내지에 '정신병원'이라는 데로 보내버려야겠지.

(이모의 눈동자가 내려오더니 이번에는 좌우로 움직인다)

합리적인 독일인들이 설립했기 때문에 광증 치료에 아주 효과를 본다더구나.

땅에 구덩이를 파서 환자를 하나씩 넣고 뚜껑을 닫아둔다지 뭐냐.

좀 나아지면 말뚝에 사슬로 묶어, 개처럼 기어 다닐 수 있게는 해준다지만...

암전히 앉았던 이모가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달려간다. 문에 채 닿기도 전에 선다. 다리에 감긴 가죽끈이 팽팽하게 당겨졌기 때문에 더 갈 수가 없다. 가죽끈의 반대편 끝은 엄청나게 커다란 떡갈나무제 책상의 다리에 묶여있다. 뚜벅뚜벅 다가가는 사사키 부인, 손에 든 가죽 채찍으로 이모의 등을 갈긴다. 조용히 의자로 돌아와 앉은 이모.

8세 히데코

(소리)

마침내 금련이 옷을 벗었을 때...

- 뱀이 지키는 서재 문간. 책으로 둘러싸인 서재의 한 가운데, 각자의 책상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10세 히데코와 코우즈키. 연노랑 장갑을 낀 히데코가 책장을 넘기면 [금병매]의 삽화. 반금련과 서문경이 서로의 음부를 어루만지는 장면을 그린 채색목판화. 유창하게 낭독하는 히데코, 곁에 앉은 이모.

10세 히데코

서문경이그여자의옥문을살피보니숨털조치없이매끈하고팽팽하고...

코우즈키

사이사이에 숨을 쉬어야지. 혀로 접시를 핥아내듯 해서야 되겠느냐?

아내를 돌아보는 코우즈키. 이모, 시범낭독을 시작한다. 공허한 눈동자와 체념한 표정과는 달리, 윤기 있는 음성과 풍부한 표현력으로 책을 읽어내린다.

이모
마침내 금련이 옷을 벗었을 때...

- 정식 독회 장면으로 전환된다. 다섯 손님과 코우즈키가 지켜보는 가운데 책을 읽는 이모. 아름다운 기모노와 정성 들인 화장 덕에 그녀는 몰라보리만큼 아름다워 보인다. 뒤에 걸린 족자에는, '숨은 샘을 찾다'라고 적혔다.

이모
서문경이 그 여자의 옥문을 살펴보니....
숨털조차 없이 매끈하고 팽팽하고 보드라운 것이
안에서부터 술 향기를 풍기고, 부드럽고 연한 곳에 이슬이 맺혀 있으며
붉은 것이 주름진 가운데 따로 생명을 가진 듯 움찔움찔하더라....

코우즈키 뒤에 쳐놓은 커다란 병풍 뒤. 10세 히데코가 앉아 듣고 있다. 호기심을 못 이기고 병풍 너머로 빼꼼 고개를 내미는 히데코. 이모부와 손님들 등짝이 보인다. 그 너머로 이모, 잠깐 낭독을 멈추고 눈을 들었다가 자기를 보고 있는 조카와 마주친다. 얼어붙은 듯 꼼짝도 못하고 이모를 건너다보는 히데코.

72. 정원 (새벽)

어딘가를 올려다보는 10세 히데코. 화면 넓어지면, 주위에 사람들이 많다. 모두 한 곳을 본다. 벗나무 가지에 매달려 흔들거리는 이모의 시신. 서재 책상에 묶였을 때의 그 가죽끈이 나뭇가지와 이모의 목을 연결하고 있다. 눈 감고 평온한 표정. 사사키 부인이, 히데코가 와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눈짓하자 허녀가 와서 단짠 안아들고 떠난다. 별채 2층 창가에서 내려다보고 선 이모부를 발견하는 히데코. 이모부 모습이 멀어진다.

12세 히데코
(소리)
여운 있는 한숨소리와 축축한 물기를 동반한 슈마첸....

73. 서재 몽타주2 (낮 - 저녁)

- 연보라 장갑을 끼고 책장을 넘기는 히데코의 손. 여러 가지 각도와 깊이로 입맞추는 두 입술을 그린 삽화들.

12세 히데코
(소리)
그리고 쪽 소리가 나는 클라첸으로 나눈다.

낭독하다 말고 멍하니 창밖을 보는 히데코. 창을 통해 보이는 벗나무. 딱- 회초리가 날아와 아이의 등을 때린다.

코우즈키
(엄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다른 분류 방법은?

- 오후 햇살. 등을 똑바로 세우고 무릎을 딱 붙인 채 의자에 앉은 히데코, 손에는 연두색 장갑을 끼었다.

15세 히데코

소리, 접촉방법, 지속시간에 따른 분류 등이 있습니다.
첫번째 입맞춤과 다른 모든 입맞춤을 구별했던 단순한 분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코우즈키

(끄덕이며)

대상과 목적, 행하는 부위에 대한 분류도 있었지.
하지만 심장의 떨림의 강도로 분류해야 한다고 했던 이탈리아 학자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계속해 보이라.

15세 히데코

...우리는 그것들을 합쳐 길고 높은 소리를 내는 슈미츨라인을 만들 수 있다.
시인은 그것을 몰레스모르시운쿨라스 곧 부드럽고 사랑스런 깨물음이라고 한다.

히데코와 코우즈키가 마주 앉은 거대한 서재. 바닥부터 2층 높이 천장까지 빼곡히 꽂힌 책들을 훑어가는 화면. 카메라가 창에 이르면 어느새 해질녘. 창밖으로 벗나무가 보인다. 나뭇가지 사이로 달랑달랑 보이는 히데코의 다리. 철봉 하듯 팔을 쪽 펴고 가지에 매달린 히데코. 몸에 힘을 빼고, 눈 감고 시체놀이를 하는 듯, 대롱대롱.

74. 정문 앞 (저녁)

운전기사가 모는 고급 자동차들이 줄줄이 정문으로 들어간다. 그 중 하나에, 긴장한 얼굴의 백작이 뒀다. 자동차 지나가면, 그가 내뿜은 담배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진다.

히데코

(소리)

“말해보라, 쥘리에트...이 경솔한 젊은 기사가 그대를 구해주기를 원하는가?”

75. 다실 (밤)

꽃꽂이 꽃처럼 앉은 히데코, 책을 낭독한다. 만족한 기색으로 듣는 코우즈키. 극장 2층 좌석에 앉은 관객들처럼, 차를 마시거나 히데코를 바라보며 낭독에 귀 기울이는 일곱 명의 신사 손님들.

히데코

공작부인은 세차게 고개를 가로저었고 나는 그것이 말할 수 없이 섭섭했다.

(목소리를 살짝 바꾸며)

“자, 용감한 기사님...”

손님들을 차례로 돌아보던 히데코, 충격 받은 사람처럼 눈도 안 깜빡이면서 자기를 응시하고 있는 백작을 발견한다.

성인 히데코

(소리)

신사들의 머릿속을 상상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 등장하는 여자의 얼굴을 내가 똑바로 볼 수 있게 되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렸다.

76. 생품 공작의 실롱 (밤) - 히데코의 상상

엉덩이를 드러낸 채 침대에 묶인 쥘리에트 역의 히데코.

서재 인서트 - 책 읽는 히데코의 정면 얼굴, 자기 자신(쥘리에트-히데코)을 보고 있는 표정이다.

쥘리에트-히데코 곁에 선 생품 공작 역의 코우즈키, 말 엉덩이를 그렇게 하듯 쥘리에트의 엉덩이를 쓰다듬는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선 기사 역의 백작.

생품 공작-코우즈키

“여기 오래된 흉터와 신선한 분홍색 상처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요?”

기사-백작

“너무도 가엾고 애처로워.... 할쩍할쩍 혀로 핏고, 토닥토닥 쓰다듬고 싶소.”

생품 공작-코우즈키

“그렇게 가엾다면 당신이.... 맞아보면 어떻겠소, 그녀에게?”

77. 코우즈키 저택 서재 (밤)

차를 마시는 것도 잊은 채 이야기에 빠져든 일곱 명의 신사들. 고상한 음악이라도 듣는 양 얽은 미소를 띤 채, 손님들 반응을 살피는 코우즈키. 히데코도 손님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그들의 머릿속을 상상한다.

히데코

채찍을 든 공작부인의 손이 허공으로 올라갔다...

(접은 부채 든 손을 허공에 올리는 히데코, 그것을 따라가는 손님1의 눈, 점점 커진다)

찰싹.

78. 생품 공작의 실롱 (밤) - 히데코의 상상

입을 꼭 다물고 채찍을 내리치는 쥘리에트-히데코. 침대에 묶여 신음을 토하는 손님1의 얼굴.

기사-손님1

헉....!

79. 서재 (밤)

부채를 든 히데코의 손이 다시 올라갈 때 그것을 바라보는 손님2. 손님2를 바라보는 히데코.

히데코

그리고 또 한 대....

(이미 눈을 질끈 감는 손님2)

찰싹.

80. 생품 공작의 실롱 (밤) - 히데코의 상상

- 침대에 묶인 손님2의 엉덩이에 내리치는 쥘리에트의 채찍.

기사-손님2

아아....

- 또 다시 허공을 가르는 채찍.

히데코

(소리)

찰싹.

-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비명 내지르는 손님3.

기사-손님3

으아아악!

히데코

(소리)

나의 자지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부풀어 올랐다.

- 때리기를 멈추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쥘리에트-히데코. 고통스럽게 숨을 헐떡이는 기사 역의 백작.

생품 공작-코우즈키

“그녀를 십 분간 당신의 것으로 해준다면 내게 무엇을 주겠소?”

기사-백작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침대 기둥에 묶인 기사-백작의 팔을 풀어주는 생품 공작-코우즈키.

히데코

(소리)

몸을 돌린 나는 의자에 앉아 그녀를 끌어안고....

81. 서재 (밤)

히데코

그녀의 보지에 나의 것을 집어넣었다.

(이야기에 열중한 손님들, 오, 아...와 같은 감탄사로 반응한다)

“오...쥘리에트...쥘리에트...”

(히데코에게 집중한 백작의 눈. 신사들을 하나하나 보는 히데코.)

흡족하게 차를 마시며 손님들을 둘러보는 코우즈키
공작이 내 뒤로 다가왔다고 느끼는 순간, 내 목엔 밧줄이 걸렸다.
내 목은 서서히 뒤로부터 조여왔고 나는 물에 빠진 사람이
무엇이라도 붙잡으려는 것처럼 몰아치는 급류 같은 그녀의 머릿단을 손에 감았다.
“이제, 십 분이 끝나가는군.”
(이야기 속으로 빠져든 백작, 숨 막히는 표정으로 히데코를 바라보다)
“천천히요, 여보...저는 아직 이 자의 고통을 충분히 즐기 못했어요.”
(두 손으로 목을 움켜쥐고 목 졸린 사람처럼)
“안 돼, 멈추면 안 돼요! 제발 나를 죽게 하시오, 이 고통 속에....숨 막히는 고통 속에....”
(손을 내려놓고 다시 평온한 목소리)
그렇게 해서 나는 마침내 쾌락과 고통이 한 가지임을 알게 되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책을 내려놓는 히데코. 누군가 숨을 턱 놓는 소리. 일제히 긴장을 풀고 자세를 고치는 손님들. 히데코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백작. 좌중을 돌아보며 반응을 가늠해 보는 코우즈키. '고통은 의복'이라 쓰인 족자가 무대처럼 생긴 도코노마 2층 높이에 걸렸다.

손님1
사드인가요?

코우즈키
사드'풍'이지요, 작자는 [도마뱀가족]의 저자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일본인이네요.
(서로 얼굴을 돌아보며 술렁이는 손님들)
함부르크에서 온 배의 일본인 선원에게서 구했지요.
(장갑을 낀 다음, 히데코에게서 책을 받아들여 손님들에게 보이며)
저급의 종이에 조잡한 활자, 낡고 닳고, 음식 찌꺼기와 인간의 분비물로 얼룩진 육체...
이 책을 손에 넣었을 때의 제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고단하게 세상을 떠돌던 이 녀석을 형제들 곁에 눕힐 때 제 기분을 아시겠습니까?

백작
아무도 펼쳐보지 않은 밀튼의 초판본에 비할 것이 아니겠습니다.

코우즈키
그렇습니다, 제가 편애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녀석들입니다.
마지막 장에는 우키요에 삽화가 있었지만, 보시다시피...

코우즈키가 펼친 부분에는 삽화의 흔적만 남긴 채 찢어진 페이지.

손님2
안타깝네요...문장만으로는 마지막 자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굳이 삽화를 수록했을 텐데...

고개 끄덕이는 손님들. 미소 짓는 코우즈키, 도코노마 벽에 달린 손잡이를 올린다. 안에서 툭니바퀴 움직이는 소리.

코우즈키

히데코, 이 장면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위에서 떨어지는 조명을 받으며 일어서는 히데코, 더운 듯 부채질을 하며 창을 약간 열어놓는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목제인형, 인형극에서처럼 팔다리에 줄이 달렸다. 백작의 눈이 커진다. 예상한 듯 눈을 반짝이며 무대에 집중하는 손님들. 긴 머리를 푸는 히데코, 의자에 달린 가죽끈으로 고정시켜 얹힌 인형의 허벅지에 올라타고 앉는다. 인형의 양 팔이 히데코의 상체를 감는다. 히데코, 인형과 제 허리를 하나의 가죽끈으로 묶는다. 인형 목에 줄을 거는 코우즈키, 손잡이를 조작하자 의자 다리가 뒤로 당겨지면서 앞으로 고꾸라진다. 동시에, 인형과 의자와 히데코가 한 몸이 되어 떠오른다. 히데코의 머리카락이 아래로 축 늘어뜨려진다. 다른 줄을 잡아당기는 코우즈키, 인형의 머리가 뒤로 젖혀진다. 히데코도 상체를 뒤로 휜다. 팽팽한 몸의 곡선, 반만 감은 눈, 유카타의 벌어진 틈으로 드러나는 흰 다리. 숨도 안 쉬고 보는 손님들. 인형처럼 감정 없는 히데코의 얼굴에 집중한 백작.

82. 정문 앞 (밤)

줄줄이 정문을 통과해 빠져나가는 고급 자동차들.

83. 서재 (밤)

다 찢어진 페이지에 남은 삽화의 흔적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며 비슷한 재질의 종이에 모사하는 백작. 히데코가 재연한 포즈 그대로, 생품 공작 부부와 젊은 기사의 삽화다. 차를 마시면서 종이를 만져보는 코우즈키.

코우즈키

종이도 몸소 만드시오? 세월의 흔적이....아주 신통합니다?

백작

마법이 아니라, 화학이지요.

코우즈키

고귀한 신분으로, 어찌 남의 그림 베끼는 일을 하시오?

백작

머리와 손재주를 믿고 노름에 열정을 기울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그 많은 여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할 돈마저 잃은 심정을
선생께서는 짐작조차 못하시겠죠.

코우즈키

이 집 여인들도 백작께 다가가더이까?

백작

저는 여자들 눈을 봅니다, 오로지 눈만을.

84. 서재 외벽 (밤)

밤하늘을 바라보는 히데코의 눈. 서늘한 바람 불어와 앞이마의 머리카락을 살짝 날린다.

백작

(소리)

여자들은 저를 피해 시선을 돌리죠. 하지만 이내 다시 돌아옵니다.

살짝 고개 돌려 뒤돌아보는 히데코. 화면 넓어지면, 서재 건물 외벽 2층의 프레임을 장식하는 구조물에 걸터앉은 히데코 보인다. 히데코, 벽에 몸을 딱 붙이더니 오페라글라스를 눈에 대고 안을 엿본다. 아까 히데코 자신이 열어놓은 창틈으로 들여다보이는 백작과 코우즈키. 백작의 이모저모를 뜯어보는 히데코.

백작

(소리)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무언의 질문과 대답이지요.
만약 오늘 밤 제가 누군가의 이불로 숨어든다면...
거절할 여성은 이 지붕아래, 딱 한 사람입니다.

85. 서재 (밤)

코우즈키

사사키 부인도 포함입니까?

백작

사사키 부인은...

(잠깐 망설이다)

선생의 전처가 아니십니까? 일본 여인과 혼인하기 위해 버리신...

(놀랐지만 꽤 능숙하게 표정관리하는 코우즈키)

하녀들이 말해주더군요, 아직도 잠자리를 함께 하신다고.

(코우즈키의 입꼬리가 한쪽만 치켜 올라간다.)

백작, 비로소 눈을 들어 상대를 바로 보며)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코우즈키

물론.

백작

어째서 그토록 - 즉 아내를 버리면서까지 - 일본인이 되려고 애쓰시는지요?

코우즈키

조선은 추하나 일본은 아름답기 때문이요.

백작

일본은 추하나 조선은 아름답다는 사람도 보았습니다만...

코우즈키

아름다움은 그저 잔인한 법인데

조선은 무르고 흐리고 둔해서 글렀소.
백작님을 거절할 단 하나의 여자 이야기나 어서 하시오, 사사키 부인도 포함이요?

백작

사사키 부인은...

적절히 신호만 드리면 속옷을 입지 않고 제 방문을 두드리실 분입니다.

잠깐이나마 냉기 어린 침묵이 감돈다. 이윽고 코우즈키, 전혀 감정이 섞이지 않은 말투로 -

코우즈키

내 생각과 정확히 같소.

그럼 누굴까, 거절할 단 한 명은?

백작

우연히 마주쳤을 때, 히데코 아가씨는 눈을 돌리지 않으셨죠.

오히려 제가 시선을 돌려야했어요.

아가씨는 마치 창에 장막을 쳐놓은 것처럼 시선이 안쪽으로만 향해 있더군요.

코우즈키

그 아이가 오늘밤 백작의 끈적한 꿈에 나오겠습니까?

백작

영광스럽게 제 꿈을 방문해주신다 해도 아가씨와는 성사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전 시작하자마자 식은땀을 흘리며 후회하게 되겠죠, 아가씨 몸은 물새처럼 차가운 테니까요.

코우즈키

(우쭐해)

오랜 훈육의 결과지요.

백작

아가씨와 정혼하셨다 들었는데...

제 눈이 틀리지 않다면 아직 관계를 하지 않으셨지요?

그 분 눈빛엔 욕망이 없어요, 그건 이미 죽은 혼이나 다름없다는 뜻이니...

훈육도 어지간히 시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이 시체와의 교접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담뱃대에 불을 붙이는 코우즈키, 백작에게도 담배를 권한다. 그러나 백작은 주머니에서 은제 담배케이스를 꺼낸다.

코우즈키

(흥미롭다는 듯 백작의 담배케이스를 보며)

어떻게 백작처럼 뚜렷한 개성을 가진 젊은이가

시가렛과 같은 천박한 유행취미에 빠져들 수 있습니까?

백작, 케이스를 연다. 칸막이가 된 내부에는 얇은 최고급 당지와 실크 컷 연초가 들었다. 당지 한 장을 꺼내 책상

에 놓는 백작, 책상에 놓인 붓을 들어 순식간에 날렵한 나체 여인의 옆모습을 그려낸다. 감탄하는 코우즈키. 거기에 얇게 잘린 연초를 넣고 돌돌 만 다음 주머니에서 향수를 꺼내 살짝 뿌린 후 불을 붙인다. 미술사처럼 우아하고 효율적인 동작. 불을 붙여 극적으로 연기를 내뿜는 백작. 깊은 인상을 받아 으음 - 하며 고개 끄덕이는 코우즈키.

백작

아름다움을 소유하는 저만의 방식입니다.

(실눈을 뜨고, 가늘게 올라가는 담배연기를 물끄러미 보면서)

히데코 아가씨도 미술교육을 받으셨겠죠?

코우즈키

등과 어깨를 끈게 펴고, 책을 또박또박 읽게 하는 데에만 신경 쓰느라...

백작

(돌아보며, 아주 놀랐다는 듯)

저런! 제가 유학한 영국에서는, 심지어는 귀족이 아닌 집에서조차
숙녀들로 하여금 꼭 아름다운 색채와 우아한 곡선을 다루게 합니다.

86. 서재 외벽 - 뒤결 (밤)

능숙하게 정해진 벽돌들을 디디면서 척척 내려오는 히데코. 옷에 묻은 먼지를 털며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백작

(소리)

그들의 유연한 몸놀림과 감각적인 예민함은 그렇게 해서 갖추어지지요.

87. 식당 (밤)

조용히 앉아 간단한 아식을 먹는 코우즈키와 백작, 히데코. 시종드는 준코가 자꾸 백작을 힐끔거리다 눈이 마주치자 얼굴이 빨개진다. 급히 코우즈키에게 다가오는 집사, 속삭인다.

집사

전화가 와있습니다.

코우즈키

(역정이 나지만 언성을 높이지는 않고)

어쨌서 이 밤중에!

집사

[이외무라 서적]입니다.

코우즈키

(지체 없이 입을 닫고 일어서며 백작을 향해)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코우즈키와 집사가 나가는 것을 보고 히데코에게 시선을 맞추는 백작. 당당히 시선을 맞받는 히데코.

백작
매혹적이십니다.

히데코
‘매혹적’이라는 건...신사분들이 숙녀의 가슴을 만지고 싶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서양식 대화 매너쯤 저도 알아요, 아무래도 책을 약간 읽고 있으니까요.

백작
계산속으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불에 손을 댔을 때 “아, 뜨거!” 하는 것처럼 저도 모르게 그만...

히데코
저는 불은커녕...물새처럼 차가운 여잔데요, 백작님.

제가 한 말을 알고 있다는 데 놀리지만 침착하게 표정을 다스리는 백작, 조끼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보며 -

백작
...곧 돌아오실 겁니다.
이외무라씨는 책에 관한 뻔한 질문을 하려고 전화한 것뿐이거든요, 제 부탁으로.
(의아하게 바라보는 히데코)
아가씨의 미래에 관해 꼭 아셔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정, 미치아이의 석등 옆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약간 고개 숙인 히데코, 백작의 속을 들여다보려든 듯 눈만 들어 차분히 건너다본다. 이모부가 돌아오고 있다.

88. 히데코 방 (밤)

어두운 실내. 창가에 선 히데코, 유리에 입김을 호- 분다. 잠시 후 김이 저절로 사라지면서 컴컴한 정원이 내려다 보인다. 갑자기 성냥불이 켜진다. 오페라글라스를 들어 내려다보는 히데코. 담배에 불을 붙이는 백작의 얼굴이 드러난다. 이쪽을 올려다보는 백작, 어두워 아무 것도 안 보이는지 표정에 변화가 없다. 저택 쪽으로 걷기 시작하는 백작. 오페라글라스로 따라가는 히데코, 저택 쪽으로 다가오던 담배불빛이 마침내 사라진다. 벽에 귀를 대는 히데코, 현관문이 닫히면서 내는 벽 울림을 느낀다. 창유리의 미세한 떨림. 계단을 올라오는 발걸음, 복도 걸어오는 소리. 후다닥 서랍을 열고 장갑부터 꺼내 끼는 히데코. 소리 안 내면서 뛰어가 방문을 붙잡고 선다. 곧이어 문 앞에 도달하는 백작의 발소리. 히데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선수 친다.

히데코
하녀를 부르겠어요, 화족의 체면을 생각하세요

백작
(굳이 낮추지도 않은 목소리로)
저는 화족이 아닙니다, 심지어 일본인도 아니죠.
전라도 머슴의 소생이 여기 오는 게 쉬웠을 것 같습니까?

삼년 걸렸어요, 당신을 만나러 온 거예요...유혹해서 결혼하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차지한 다음...그리고 아마도 당신을 버리려고요
(대담한 솔직성에 깊은 인상을 받는 히데코)
하지만 만나자마자 알았죠, 어떤 남자도 당신을 유혹하기는....

갑자기 문 여는 히데코. 벽에 한 팔 대고 뼈뺏하게 기대서서 지껄이던 백작, 말을 멈추고 눈을 들어 히데코를 본다.

히데코
....불가능하죠

백작
(싱긋 웃으며 넉살좋게 들어와)
그래서 난 유혹 대신 '거래'를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히데코
해보세요, 제안.

백작
나하고 혼인합시다.
(아이없어 코웃음 치는 히데코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못 진지하게)
구속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혼인 말입니다.
여기서 아가씨를 구해내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 자유롭게 놓아드리겠어요.
물론 돈은 나눠야겠지만....

히데코
어림없는 소리!

백작
꽃다운 나이에, 햇바닥 새까만 노인하고 결혼하는 건 어림이 좀 됩니까?

히데코
난 늙하고도 결혼 안 해요

백작
(히데코의 눈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죽음을 생각하고 있군요....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릅답지 않아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백작을 보고 뜨끔 하는 히데코)
아가씨가 죽으면 재산은 어디로 가죠?
그게 당신이 죽음으로 얻고자 하는 결실인가요, 아버지 재산을 그 변태에게 넘기는 것?
어디서 또 예쁜 소녀를 열고 스물이고 사다가 낭독을 가르치게 말이죠?

히데코
이모부는 어떻게든 우릴 찾아낼 거예요, 잡히면 지하로 끌려가요.

백작
지하요?

89. 서재 (낮) - 회상

낭독 연습중인 15세 히데코와 코우즈키. 히데코가 고개 들어 이모부를 본다.

15세 히데코

이모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모부가 돌아보기를 기다렸다가, 읽던 책 [장외사의 침실]을 가리키며)
여기엔 목매 죽은 사람은, 혀를 길게 빼물고 똥을 싼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라고 문듯이 미간을 찌푸리며 다음 말을 기다리는 코우즈키)
그런데 그 날 이모는 왜 입도 꼭 다물고 아랫도리도 깨끗했어요?

물끄러미 바라보는 이모부의 시선이 불편하다. 꽤 오래 냉랭한 침묵이 감돈다. 이윽고 몸을 일으키는 코우즈키.

코우즈키

나하고 좋은 구경 갈래?

90. 서재 지하실 (낮) - 회상

컴컴한 실내. 문이 열리면서 빛이 쏟아져 들어온다. 긴 계단 꼭대기에 두 사람의 실루엣이 드러난다. 히데코가 앞장서게 하고 따라오는 코우즈키, 낮인데도 등롱을 들었다. 머뭇거리며 떠밀리듯 한발 한발 내려오는 15세 히데코.

코우즈키

네 이모가 어떻게 해서 달아날 용기를 냈는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왜년들은 남자에게 순종적이라고들 하지 않던?
힘써 교육시킨 계집을 또 잃고 싶지 않아서 널 여기 데려온 거야.
그때 이 방에서 내가 네 이모한테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가르쳐줄 테니
넌 절대로 달아날 생각 마라, 알겠니?

지하층에 도착해서 아래로 늘어진 줄을 잡아당기는 코우즈키, 천장등이 켜진다. 히데코, 카메라 뒤로 펼쳐진 -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 실내 풍경을 보고 입을 벌린다.

91. 히데코 방 (밤)

회상만으로도 몸서리를 치는 성인 히데코.

히데코

그날은 그냥 보고 듣기만 했어요.
하지만 거기 다시 가는 날에는...몸소 ‘겪게’ 될 거였어요

주머니에서 조그만 보석함을 꺼내는 백작, 안에서 조그만 유리병을 꺼낸다. 안에 든 짙은 푸른빛의 액체. 유리병의

뚜껑은 고무 손잡이가 달린 스포이트이다. 스포이트로, 푸른 액체 한 방울을 병 안에 똑 떨어뜨려 보이는 백작.

백작

....한 방울 먹으면 종일 폭 잘 수 있습니다, 세 방울이면 말이라도 굶아떨어지죠.
단 오 분 안에 죽음에 이르고 싶다면? 몽땅 들이키면 됩니다.
이것만 지니고 있으면 이모부는 절대 아가씨를 지하실에 못 데려갑니다, 적어도 산 채로는.
(병을 향해 손을 뻗치는 히데코, 짹째 주머니에 넣어버리는 백작)
....결혼예물입니다, 약소하지만.

히데코

(이쉬움을 달래느라 잠시 침묵하다가)
내 또래 계집아이를 하나 구해주세요.
갑자기 사라져도 신경 쓰는 사람 없는 아이로...좀 둔하면 더 좋겠죠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정신병원이란 데 집어넣기로 해요, 내 이름으로요.
거기선 땅에 구덩이를 파서 환자를 하나씩 넣고 뚜껑을 닫아둔대요.
난 내 이름이 그 구덩이에 묻히기를 원해요
(경탄하는 백작을 향해 미소 짓는 히데코)
....자, 우리 혼인을 위해 맨 먼저 어떤 일부터 하실 건가요?

92. 하녀 방 + 히데코 방 (밤)

나중에 숙희가 쓰게 될 방. 백작에 의해 벽으로 거칠게 몰아붙여지는 준코, 눈을 내리깔고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

준코

히데코 아가씨보다 제가 더 예쁜단 거, 참말이죠?

백작

(히데코의 방 쪽을 의식하며)
뭐? 어....그럼그럼! 히데코도 예쁘고 준코도 예쁘고...

준코

헛, 조용! 근데....어머, 조선말을?!

백작

(당황하지 않고)
어, 그건 말이지....배웠어, 너하고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준코

어머어머!

준코가 내려다보면, 미술사처럼 기모노를 순식간에 해체시켜버리는 백작. 엄지와 집개손가락으로, 드러난 준코의 젖꼭지를 잡아 조금 비틀면서 당긴다.

백작

요원

준코의 교성을 들으면서 카메라 서서히 수평 트래킹하면 벽을 지나 히데코의 방. 벽에 뚫린 작은 구멍에 눈을 대고 선 히데코, 완전히 무표정한 얼굴.

준코

(억누른 소리)

아아아아...안 돼요, 저 쫓겨나요...아악...백작님, 서서 이려는 건 첩예요...

준코의 소리 점점 사라져가고 카메라 다시 반대로 트래킹하면 벽을 지나, 어두운 하녀 방으로 돌아온다. 어느새 방이 비었다. 멀리서 가까워지는 두 사람의 발소리와 말소리. 삐걱- 문 열리며 사사키 부인과 숙희가 입장.

사사키 부인

히데코 아가씨는 신경쇠약이라 잠이 잘 깨서.

숙희

저 너머에 아가씨가 계시다고요?

카메라 다시 돌아가면 벽 너머에서 훑쳐보는 히데코의 모습. 사사키 부인이 쉿 하는 소리에 이어 문 닫히는 소리. 사사키 부인의 발소리 멀어진다. 숙희의 한숨소리.

히데코의 구멍을 통해 보이는 숙희, 두렵고 멍한 얼굴로 두리번거린다. 조심스럽게 문을 조금 열고 이 방을 들여다 본다. 일부러 발뒤꿈치로 바닥을 짚어 쿵 소리 내는 히데코. 깜짝 놀라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는 숙희. 히데코, 웃음을 참는다. 꾸물꾸물, 옷을 벗는 숙희. 이불 밖으로 나오는 숙희의 벗은 팔, 벗은 옷을 떨군다. 흥미롭다는 듯 지켜보는 히데코. 이불 밖으로 나오는 숙희, 쪼그리고 앉아 가방에서 유키타를 꺼낸다. 덜덜 떨면서 투덜댄다.

숙희

니미랄....

‘니미랄’하고 중얼거려보는 히데코. 숙희, 아무 것도 모르고 엿보는 구멍 가까이 선다. 바로 앞에 있는 숙희의 젓가슴을 보는 히데코, 당황한다. 후다닥 유키타를 입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숙희, 머리까지 뒤집어쓴다.

잠시 후 -

침대에 누운 히데코, 말뚱말뚱 천장만 보고 있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른다.

히데코

아아악! 엄마!

눈 감고 기다리는 히데코. 이내 잠 깬 숙희가 튀어 들어온다. 계속 비명 지르는 히데코를 흔들며 깨우는 숙희.

숙희

아가씨, 아가씨...괜찮으세요?

히데코

준코? 준코니?

숙희
준코는 쫓겨났고요, 제가 새로 왔어요.

으응 - 하며, 희미한 안도의 미소를 짓는 히데코 얼굴에서 빠르게 페이드아웃.

93. 히데코 방 (아침)

창가에서 소개장을 읽는 히데코, 긴장된 표정으로 자기를 보는 숙희를 의식한다.

백작
(소리)
기회 될 때마다 꿩이나 좋은 옷, 구두 따위를 슬쩍슬쩍 보여주세요.
어미로부터 물려받은 물욕이 그 아이를 더 어리석게 할 테니까요.
추신, 아가씨가 이모부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디.
숙희가 아가씨께 불필요한 동정심을 품어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숙희가 편지를 넘겨보더라도 걱정 마세요... 괜 까막눈이랍니다.

숙희가 보는 가운데 편지를 작게 접어 소매에 넣는 히데코.

히데코
그렇구나, 미나미 부인이 정말 너를 높이 평가해 주었구나...
(갑자기 소매에 손을 넣어 편지를 다시 꺼내더니 숙희에게 건네며)
읽어볼래?

숙희
(당황하며)
아니오....

히데코가 코앞에 소개장을 들이대자 어쩔 수 없이 들여다보는 숙희. 땀을 비질비질 흘리며 편지를 뚫어지게 본다. 흥미로운 얼굴로 숙희의 표정을 관찰하는 히데코.

숙희
....읽을 줄 몰라요, 아가씨.

히데코
전혀? 조선 글도?

눈썹연필로 종이에 갈겨쓰는 히데코, 숙희에게 보여준다. 이번에는 우리도 볼 수 있다 - '후지와라 히데코 백작부인'.

히데코
요시코 네 이름이야, 이름도 몰라?
(비참한 얼굴로 고개 젓는 숙희를 보고 잔인한 미소를 짓는 히데코.
히데코, 흠 문은 숙희의 한 쪽 발 발건하고)
발은 왜 그래?

94. 하인숙소 (낮)

줄지어 선 하녀 2, 3, 4의 따귀를 한 대씩 때리는 히데코.

히데코

누구지, 요시코 신을 가져간 년이?

(하녀들 시선이 가는 방향, 하녀1. 히데코, 성큼성큼 다가가 머리채를 움켜쥐고
마구 흔든 뒤 내동댕이친다. 산발이 되고 얼굴에 손톱자국이 난 채 뒹구는 하녀1)

하녀들 다 모인 데서 요시코한테 사과해.

(하녀들을 돌아보며)

만약에 요시코가 너희 때문에 도망이라도 치는 날이면, 모조리 발가벗겨서 내쫓을 거야.

표독스런 얼굴의 히데코. 겁먹은 하녀들.

히데코

(선행하는 소리)

뽐, 뽐, 뽐!

95. 정원 (낮)

소리 죽여 웃으며 뛰는 히데코와 숙희, 우산은 쓰는 등 마는 등. 숙희를 돌아보는 히데코.. 1부에서보다 히데코의 얼굴을 잘 보게 된 우리는, 그녀가 얼마나 숙희의 존재를 즐기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히데코

(소리)

책에 나오는, '동무'라는 것...이런 것일까?

96. 히데코 욕실 (밤)

막대시탕을 남남 빨아 먹으며 목욕통에 들어앉은 히데코, 재밌어 하는 얼굴. 물속에서 갑자기 머리 내미는 숙희, 강아지처럼 부르르 고개를 흔들며 물을 털어낸다. 제 얼굴에 물방울이 마구 튀는데도 웃음을 터트리는 히데코, 빨강게 물든 헛바다. 사내아이처럼 꺾꺾꺾 웃는 숙희, 제가 여기 왜 왔는지도 잊은 양 마냥 즐거워 보인다.

히데코

(소리)

겨울이면 흠친 지갑들로 가죽외투를 엮어 팔았다는 유명한 여도둑의 딸,
저 자신도 도둑, 소매치기, 사기꾼...멀리서 내 인생을 망치려 온 나의 구세주...

97. 숙희 방 (밤)

나란히 누워 히데코의 머리를 아기처럼 꼭 안은 숙희. 졸린 듯 눈을 깜빡이며 다정한 숙희의 얼굴을 보는 히데코.

숙희

(낮고 다정한 목소리)

착하죠...이제 자는 거예요

(노래)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자장자장 히데코의 가슴을 토닥이며 재우더니 이내 입을 벌리고 잠드는 숙희. 그녀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 입냄새를 맡아보는 히데코. 가볍게 코를 고는 숙희.

히데코

(소리)

나의 요시코...나의 숙희...

백작

(선행하는 소리)

아, 네가 바로 숙희?

98. 응접실 (낮)

히데코의 시점 쇼트 - 백작과 숙희가 함께 보이지만 초점은 오로지 숙희에게. 백작, 짐짓 장난스러운 투로 -

백작

내가 잘 못하면 내가 난처해진단 거, 알고 있지?
자, 말해 보거라...네 임무는 충실히 하고 있겠지?

공손한 숙희의 반응을 관찰하는 히데코. 기증스럽다는 듯 보다가, 표정을 고치고 상냥하게 나선다.

히데코

추천 감사드려요, 백작님은 절 위해 완벽한 사람을 골라주셨어요.

백작

절대 둔한 아이는 안 된다고 하셔서 애써봤습니다.

(주머니에서 은화를 꺼내)

외로우신 우리 아가씨를 잘 부탁한다.

히데코 눈치를 살피는 척하는 숙희의 연기가 역겨운 히데코.

오로지 히데코와, 히데코의 시점으로 잡힌 숙희 - 두 여자의 얼굴 클로즈업들로만 이루어진 씬.

99. 히데코 방 (낮)

분홍 비단구두를 볼에 대고 있는 히데코, 감격한 척 연기한다.

히데코

이렇게 예쁜 거 본 적 있니, 요시코?

구두상자에 동봉된 카드를 읽는 히데코.

백작

(소리)

빌려주신 귀한 구두, 감사한 마음으로 반납합니다.

과연 여자가 운명을 걸어볼만한 명품이네요.

(카드 너머로 숙희를 살피는 히데코, 감탄하는 표정으로 구두를 바라보는 숙희)

이걸 갖기 위해서라도 숙희가 최선을 다하리라 생각합니다.

잠시 후 -

만찬 후, 거울 앞에 선 두 사람. 숙희가 입은 드레스 등에 달린 단추를 잠그는 히데코, 품평하듯 숙희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바라본다. 자기 구두를 벗어 밀어주는 히데코를 보고 놀라는 숙희.

숙희

제가요?

(고개 끄덕이는 히데코.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조심 발을 넣는 숙희.

구두가 발에 잘 들어맞는 순간, 반짝 빛나는 눈)

....어머, 맞네....?

도로시가 빨강구두 뒤축을 퐁퐁 부딪혀보듯 바닥을 짚어보는 숙희, 마음에 드는지 히데코를 보며 씩 웃는다.

히데코

(소리)

구두가 제 건 줄 아는 그 계집애가 너무 미련해서 기분이 나쁘다.

역지로 미주 웃는 히데코, 숙희의 팔짱을 끼고 니란히 거울을 본다.

히데코

....우리 닮았지, 꼭 자매 같지 않아?

숙희

어떻게 그런 말씀을....

히데코

....백작님 말씀, 알 것 같아.

숙희

무슨 말씀요?

히데코

(소리)

너 진짜 둔하고 어리석다는....

100. 뒷동산 (낮)

숙희

(방긋 웃으며)

후딱 다녀올게요, 비 오기 전에.

뛰어가는 숙희. 홀로 남겨진 히데코, 구름을 구경하고 있노라니 백작이 나타난다. 뒤를 가리키며, 별 꼴이라는 듯 -

백작

재 왜 저래요?

101. 응접실 (낮)

창밖에 비. 낮인데도 불 켜놓았다. 담요 두르고 소파에 앉아 고개 숙인 히데코, 곁에 다가와 손을 붙드는 백작.

히데코

남자들, 메스꺼워....어쩌면 그렇게 한 가지 생각만 골똘할까!

백작

(놀라는 시늉하며)

내 생각이 뭔데요?

설마...내가 아가씨 몸에 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성난 얼굴로 백작을 보는 히데코)

맞구만요! 하하하- 그런 책을 너무 읽으셨어....

저한테 일념이 있다면요, 아가씨....

당신 눈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돈, 오로지 당신의 돈! 당신 가진 것 중에 으뜸은 돈!

야아- 이렇게 귀족 아가씨한테 함부로 씨부리니까 시원타....

껄껄 웃는 백작. 노크 소리. 벌떡 일어나 백작에게서 멀찍이 떨어진 데로 옮기는 히데코. 갑자기 어조를 바꾸어 부드러운 음성으로 대답하는 백작.

백작

네....

턱과 머리카락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숙희, 문을 뺨뚱 열고 들어선다. 숙희를 똑바로 못 보는 히데코.

숙희

죄송해요, 아가씨....

102. 뒷동산 (낮)

스포트라이트처럼 햇빛 쏟아지는 너럭바위에 앉은 히데코. 아무렇게나 흘러내린 머리,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 앞에 백작이 앉아있지만 지금 우리로서는 히데코만 볼 수 있다. 멀리서 숙희가 찾는 외침이 들린다.

103. 정원 (낮)

뒷산에서 내려다본 정원. 이리저리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는 숙희 모습이 조그맣게 보인다.

숙희
아가씨!
...백작님!

104. 뒷산 (낮)

썸102 연결. 손을 뺀 백작, 히데코의 흘러내려온 머리카락을 만진다.

히데코
당신이 싫어요.

백작
숙희 올 때까지만 참아요, 이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내가 청혼했다고 해요.

머리카락에서 볼로, 볼에서 턱으로 내려오는 백작의 손. 입을 꼭 다물고 건디는 히데코. 그런 히데코를 귀엽게 바라보던 백작, 히데코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관자놀이에 입 맞춘다. 몸 가까이 끌어당기며 귓불에 입 맞춘다. 옷을 어깨 아래로 내리며 쇄골에 입 맞추자, 거칠게 백작을 밀쳐버리는 히데코. 화가 나 노려보는 백작.

백작
이런 연기도 해야 하는 걸 몰랐다고는 안하겠죠?
날 그 나무인형이라고 여겨봐요, 나도 딱 여자 생각할 테니.

히데코
누구를 생각할 건데요?

백작
공작부인... 줄리에트.

풋 웃더니, 갑자기 백작의 무릎에 도발적으로 올라와 앉는 히데코, 기모노 앞섶을 푼다.

히데코
자, 나예요... 딱 여자가 아니고.
(백작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는 히데코)
다시 해보세요.

입 맞추는 백작, 몸을 맡기는 히데코. 백작, 손으로 히데코의 허리를 감싼다. 몸은 경직된 채, 주먹 꼭 쥐 히데코.

숙희
(소리)

아가씨

히데코, 몸을 뒹다. 숙희와 눈이 마주치자 흔들리는 히데코의 눈. 숙희, 몸을 돌려 도망친다. 화구들, 여기저기서 투두둑 떨어진다. 벌떡 일어서는 히데코의 어깨를 감싸 안는 백작. 거칠게 뿌리치는 히데코.

히데코

(책 읽는 소리)

아가씨의 감정은 깊이 감추어져 있어, 금란이 헤아리기 힘들었다.

105. 서재 (밤)

'바람 잔 밤, 방울소리' 라고 쓰인 족자. 책 읽는 히데코. 백작을 포함한 손님 다섯과 더불어 듣는 코우즈키.

히데코

이를 안 손씨 부인은 작은 은공 네 개를 금란에게 주었다.

“이것은 먼령勉鈴, 즉 ‘애쓰는 방울’이라 일컫는 것이니라.

이것 두 개는 아가씨의 옥문에 넣고 두 개는 너의 것에 넣어라.

106. 숙희 방 (밤)

잠 못 들어 뒤척이는 숙희, 낮에 본 히데코와 백작의 키스 장면이 자꾸 떠올라 괴롭다.

히데코

(소리)

각자 다리를 벌려 마치 두 개의 가위가 서로를 찢겠다는 듯 엇갈려 부딪침으로써

아랫도리의 조그만 입술과 입술끼리 비비고 문지르면, 맑은 소리가 날 것이다.”

미닫이문이 열린다. 히데코가 제 베개를 들고 들어온다. 숙희 옆자리로 파고든다. 매정하게 돌아눕는 숙희. 등 맞 대고 모로 누운 숙희와 히데코, 둘 다 말뚱말뚱. 잠시 그렇게 있다가 이윽고 입 여는 히데코 -

히데코

그 분이 청혼하셨어.

107. 서재 (밤)

갈라지는 목소리로 낭독을 중단하고 숨을 몰아쉬는 히데코. 신사들, 걱정스레 히데코를 본다. 목소리를 가디듬으며 계속 읽어나가는 히데코의 이마와 콧등에 맺힌 땀방울.

히데코

“언제 이것을 넣습니까?” 금란이 물었다.

“아가씨가 숨을 깊게 쉬고 침을 삼키는가?

귀에 달콤한 말들을 속삭이며 입맞춤하는가?

너를 꼭 껴안고 젖꼭지를 만지작거리는가?

음문이 매끈매끈해지면서 은근히 어깨를 무는가?
다리를 너의 다리 사이로 넣으며 발끝에 힘을 주는가?

(잠깐 뜸 들였다가)

....바로 그 때다.”

히데코, 조용히 책을 내리고 고개 든다. 뺨이 발갈게 달아올랐다. 최종, 말을 잊었다.
백작을 향해, 어땀나고 묻는 시선을 던지는 코우즈키. 시선을 눈치 채고 헛기침하는 백작.

백작

....아가씨께서 손씨 부인과 금란, 두 여성의 목소리를 서로 구별되게 내주시니
전에 누차 들었던 남성, 여성의 대화보다 한층 여실하여
저도 모르게 숨을 깊게 쉬고 침을 삼키는가 하면, 발끝에 절로 힘을 주었다가....

백작의 재치에 신사들, 유쾌하게 웃는다. 그들이 시선을 돌린 사이 손수건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는 히데코.

백작

(소리)

....가히 절정이라 할 순간에 가차 없이 낭독을 마치시자,
소스라쳐 그만 소름이 돋고 눈물이 솟았습니다.

너스레떠는 백작을 차갑게 보는 히데코, 갑갑하다는 듯 땀에 젖은 옷의 깃을 잡아당겨 몸에서 떼어낸다.

108. 숙희 방 (밤)

히데코, 자기 옷 앞섶을 푼다. 하얀 가슴이 드러나자 한숨 쉬는 숙희.

숙희

아...너무 예뻐요, 백작님은 정말 아가씨의 이걸 보시면...

히데코의 젖꼭지를 만지작거리더니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대는 숙희. 히데코, 몸을 뒤틀며 발끝에 힘을 준다.

히데코

그 분이 정말 이렇게 살살 해주실까, 숙희야?

숙희

(히데코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으며)

그럼요, 그리고 또 백작님은 이렇게...이렇게...

히데코

(숙희의 옷을 거칠게 벗기더니 그녀의 어깨를 깨물며)

아...숙희야...계속해줘, 백작님처럼...

숙희

(히데코의 다리 사이를 어루만지며)

백작님은...백작님은...무척이나 요걸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정말 부드럽고 따뜻하고...촉촉하군요
(갑자기 썩 내려가 히데코의 다리 사이에 머리를 들이밀고)
갈라진 틈 속엔 진짜 맛있는 게 들었을 듯도 한데요?”

히데코 몸이 활처럼 휨다. 애무가 시작되자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 어쩔 줄 몰라 하는 히데코.

숙희
....더....가르쳐....드릴까요....아가씨?

히데코
응, 응...해줘...다 가르쳐줘...

히데코의 시점으로 - 자기 다리 사이에 엮드린 숙희가 엉덩이를 치켜든 모습. 상체를 일으켜 앉는 히데코, 팔을 뻗어 숙희의 엉덩이를 끌어당긴다. 히데코 시키는 대로 몸을 움직이자 둘은 모로 누운 채 마주보게 된다. 물론 방향이 반대라, 서로의 다리 사이에 머리를 넣고 해주는 애무가 가능하다.
잠시 후, 침대 모서리에 앉는 히데코, 숙희를 허벅지 위에 앉힌다. 마주 본 상태에서 한 손을 다리 사이에 넣어 숙희의 아랫도리를 만지면서 입으로는 숙희의 젖꼭지를 빠는 히데코. 그녀의 머리를 감싸안고 쓰디듬는 숙희.

숙희
저도 젖이 나와서 아가씨를 먹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히데코
(잠깐 입을 떼고 올려다보며)
나를 원하니?
(고개 끄덕이는 숙희)
내가 이렇게 해주면 좋아?
(더 열심히 고개 끄덕이는 숙희)
말해봐,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숙희
저는...아가씨를...아가씨를...절대로...

히데코
(눈을 똑바로 보며)
...절대로?

숙희
(눈 감으며)
절대로...버리지 않을래요.

이제야 만족하는 히데코, 몸을 일으키더니 숙희를 리드해 자세를 바꾼다. 독회에서 읽었던 ‘두 가위’ 체위. 히데코의 대담성에 놀라는 숙희. 엇갈리게 누워 가랑이를 마주 대는 둘, 점점 더 빨리 몸을 움직이며 절정을 향해 간다.

숙희
아가씨....아...어쩌면 이렇게...아무 것도 모르시면서...
타고나셨나 봐요...

1부의 동일한 장면과는 달리, 전신 쇼트 위주로 이루어진다.

109. 응접실 (낮)

나란히 앉은 히데코와 백작, 숙희를 모델 삼아 그림 그린다.

히데코
(소리)
그 밤 이후 난 말이 없어지고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거나
자다가도 돌아누워 한숨 쉴 때가 잦았다.

숙희와 하나도 닮지 않은 히데코의 스케치와는 달리, 백작의 채색 초상화는 놀랍도록 생생하게 모델을 재현하고 있다. 다만 아주 작은 타원형의 그림이다. 나중에 히데코의 엄마 초상을 대신해서 로켓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히데코 바로 뒤로 의자를 옮겨 앉은 백작. 바로 코 밑에 오는 히데코의 머리, 백작의 가슴에 닿는 히데코의 등. 어깨부터 쪽 히데코의 몸에 밀착시켜 그녀의 연필 진 손을 잡는 백작, 팔을 움직이면서 상대의 반응을 유도한다. 발개진 얼굴로 필사적으로 글씨쓰기에 몰두하는 숙희. 그림에 엉망으로 선을 긋는 두 사람. 히데코, 숙희 얼굴에 죽죽 그어지는 연필선을 바라본다. 다른 손으로 히데코의 허리를 감는 백작. 숙희의 얼굴을 지워버리려는 듯 더 열심히 팔을 움직이는 히데코. 그 행동을 자기에 대한 도발로 받아들인 듯 옷 속으로 손을 넣으며 히데코의 컷불을 살짝 깨무는 백작. 분노와 슬픔을 참으며, 억지로 외면하고 있는 숙희의 옆얼굴을 보는 히데코. 어느새 연필로 새끼맴게 덮인 그림 속 숙희 얼굴. 백작의 혀에 귀를 맡긴 채 울상이 되는 히데코, 폭발 직전이다.

110. 뒤뜰 (밤)

건물 모퉁이에 숨어 엿보는 시점 - 어두운 구석에서 거칠게 숙희의 어깨를 잡아 흔드는 백작, 으르렁댄다.

백작
씹지도 못하고 뱉었잖아, 너 때문에!
(어린이처럼 발까지 동동 구르며)
다 익었는데, 다 익었는데!

111. 응접실 (낮)

연필을 던지는 히데코.

히데코
그만, 그만요! 못하겠어요

그 소리에, 못 참고 돌아보면서 벌떡 일어서는 숙희.

112. 뒤뜰 (밤)

숙희

그러니까...히데코를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라구.
천지간에 아무도 없는 애야...그러다 겁먹으면 조잡지 꼬옥 오므려버릴걸?
그리고, 다시는 그 애기 장난감 같은 쫓대가리에 내 손 갖다 대지 말아줘!

건물 뒤에 몸을 숨기고 훑쳐보던 히데코, 웃을 상황이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픽 웃고 만다. 발소리가 들리자 급히 어둠 속에 숨는다. 숙희가 저벅저벅 앞을 지나간다. 혼자 남은 백작이 식식대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

백작

....나오시죠,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히데코, 백작 앞으로 걸어온다)
들으셨죠? 아가씨가 이 결혼을 원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
재, 언제 또 못하겠다고 나자빠질지 모른다고요...
아가씨가 날 사랑하는 시늉을 실감나게 잘해야 돼요!

히데코
못하겠어요.

백작
(귀를 의심하며)
예?

히데코
관들래요.

백작
(헛웃음 치며)
하아 다들 오늘 무슨...
(폴리려는 무릎에 힘주고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왜요?

히데코
다 미워요...엄마, 아빠, 이모, 이모부, 당신, 그리고...

백작
그리고?

히데코
숙희도 꼴 보기 싫어요.

백작

(이제야 알았다는 듯)

개가 불쌍해서 이리는군요?

(하늘 보고 혼잣말)

하아- 여자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

(다시 히데코를 향해, 한 마디 한 마디 또박또박)

숙희가요...그 불쌍한 숙희가 말예요, 아가씨를 두고 뭐랬는지 알아요?

젓꼭지를 잡아당겨도 뭘 하지는지 모를 숙맥이라던데요?

가련해서 몇 번 잘해줬더니, 그냥 질질 싸더라고...테리고 놀기 너무 쉽다고

잘 한번 생각해봐요...개가, 그 어리숙한 종년의 얼굴을 하고...

의사들한테, "우리 아가씨는 미쳤답니다"하고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입 꼭 다문 히데코, 눈이 이글이글 타오른다.

113. 히데코 방 (밤)

찰싹. 숙희 뺨을 때리는 히데코. 찰싹, 찰싹, 찰싹.

잠시 후 -

히데코, 숙희를 강제로 일으켜 세우더니 다짜고짜 밀어붙인다. 숙희의 방으로 집어넣고 문을 꽁 닫는다. 식식거리면서 옷장 문을 여는 히데코, 모자상자들을 뒤진다. 숙희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 흘러나온다.

114. 계단 (밤)

등롱 들고 옆구리에는 모자상자를 끼고 조용히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히데코. 벽에 그림자가 커다랗게 일렁인다.

히데코

(소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115. 히데코 방 (밤)

고요한 실내. 삐걱- 하녀 방 문 열며 나와보는 숙희, 의아한 얼굴로 두리번.

숙희

아가씨...?

116. 정원 (밤)

열린 채 잔디밭에 뒹구는 모자상자. 히데코의 손, 벗나무 가지에 밧줄을 묶는다. 화면 넓어지면 우리는 밧줄의 다른 끝이 이미 그녀 목에 걸려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가지를 두 손으로 단단히 잡는 히데코.

히데코

(소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몸을 날린다. 두 팔로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린다. 눈을 꼭 감고 입을 꼭 악물더니 가지 붙잡은 손을 놓는 히데코. 떨어져 내리며 빗줄이 목을 조이는가 싶었는데, 어디에 걸린 것처럼 허공에 멈춰버리는 히데코의 몸. 놀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려다본다. 숙희가 뒤에 서서 히데코의 다리를 안아 붙잡았다, 눈물 글썽한 눈으로 올려다보며.

히데코

냐.

숙희

아가씨...제가 잘못했어요...

히데코

냐.

숙희

(울먹울먹)

잘못했어요, 아가씨...죽지 마세요...제가 잘못했어요.

히데코

....네가 뭘 잘못했는데?

숙희

(우왕 울음 터뜨리며)

아가씨를 꼬여서 그 나쁜 새끼하고 결혼시키려고 했어요....

정신병원에 처넣고 도망가려고 했구....

히데코

(차분하게)

숙희야...내가 걱정돼?

(고개 끄덕이는 숙희)

나는 네가 걱정돼.

(똥 소리가, 어리둥절한 숙희, 울음 멈추고 귀 기울인다)

넌...네가 날 속여먹은 줄 알지?

속은 건 너야...정신병원엔 '네가' 들어가는 거라고.

내 이름으로 널 거기 가둬놓고 난 멀리 달아나려고 했어, 그 나쁜 새끼하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숙희)

....미안해하진 않을게, 너도 날 등쳐먹으려고 했으니까.

지난 시간을 반추하는 듯 가만히 서서 생각에 잠기는 숙희, 위태로운 자세로 암전히 기다리는 히데코. 숙희, 마침내 사태를 파악했는지 이를 갈며 -

숙희

이런...나쁜 새끼!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분노에 몸부림치는 숙희. 대통령 매달린 히데코, 손으로 밧줄을 잡고 아아악- 버둥댄다.

117. 히데코 방 (밤)

골똥한 얼굴로 펜촉을 놀리는 숙희. 히데코가 달필로 미리 써놓은 편지를 삐뚤빼뚤 베껴 적는다. 지켜보는 히데코.

숙희

복순 이줌마, 두루 안녕하십니까? 저 숙희입니다.

보고픈 마음이야 한정 없지만 이만 줄이고...

오늘은 사업상 어려운 부탁을 드리고자 이 편지를 씁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몰라 진짜 보석을 동봉하오니....

책상 위에 놓인 금팔찌를 들어 흔들어 보이는 히데코. 숙희, 받아들더니 깨물어본다.

118. 코우즈키 저택 앞 (낮)

자동차에서 모자챙을 들어 인사하는 백작 너머로, 현관 앞에 선 히데코와 코이즈키. 그 뒤에 선 집사와 하인, 하녀들 사이로 숙희 모습도 보인다. 차가 출발한다. 곧바로 다음 차가 들어와 서자 코이즈키와 집사가 탄다. 이모부가 손짓하자 조르르 달려가 앞에 서는 히데코. 귀에 대고 속삭이는 코우즈키.

코우즈키

이제 동안의 자유를 얻었지만 언제나 지하실을 생각하렵.

겁먹은 히데코의 눈동자.

진입로를 빠져나가는 코우즈키의 자동차.

하녀들 사이의 숙희를 바라보는 히데코. 하인들, 각자 일을 찾아 떠나고 북적이던 현관에 둘만 남는다.

히데코

나하고 좋은 구경 갈래?

119. 정원 (밤)

소리 없이 정원을 가로지르는 그림자 둘.

120. 서재 + 정신병원 (밤)

달빛이 비쳐드는 서재. 책들도 잠을 자는 듯 조용한 가운데, 도기로 만든 뱀만 대가리를 쳐들었다. 성큼성큼 들어서는 히데코. 주눅 든 얼굴로 조용히 문 닫고 들어오는 숙희. 가운데 서서 책장을 쪽 일별하는 히데코. 두리번두리번 살금살금 걸어오다가 멈춰 서는 숙희, 뱀이 만든 선을 풀뚝 뛰어넘는다. 히데코, 책 한 권을 꺼내들더니 숙희에게 내민다. 당황하는 숙희, 소곤댄다.

숙희

일본글은 안 가르쳐주셨잖아요.

말없이 물끄러미 보면서 기다리는 히데코. 하는 수 없이 한 장 한 장 펼쳐 넘기는 숙희, 백작이 복원한 삽화를 발견한다. 엉덩이를 드러내고 엎드린 공작부인 쥘리에트의 뒤에서 젊은 기사가 삽입하는 장면. 돌아보는 쥘리에트의 얼굴은, 영락없는 히데코다. 숨이 거칠어지는 숙희, 히데코를 본다.

숙희

그동안 이따 걸 읽어줬던 거예요, 그 더러운 늑은이한테?

히데코, 끄덕인다. 책장을 움켜쥐는 숙희, 반사적으로 말리려드는 히데코. 손길을 뿌리치고 거칠게 찢어버리는 숙희, 다른 책도 뽑아 본다. 여기저기 춘화들을 마구 찢어낸다. 떨면서 지켜보던 히데코도 어느덧 용기를 내 책 한 권을 찢기 시작한다. 그 다음부터는 쉽다. 이 책 저 책 꺼내 마구 찢어댄다. 얼굴이 붉어지고 숨이 가빠져 어깨가 들썩인다. 서두르느라 손길이 거칠다. 광기로 번들거리는 히데코의 눈동자. 여러 페이지를 한꺼번에 찢느라 힘들어하는 히데코, 품에서 은장도를 꺼내 내미는 숙희. 히데코, 그것을 흘끗 보더니 성큼성큼 걸어가 벽에 걸린 일본도를 꺼내든다. 나란히 걸려있던 칼들, 채찍, 회초리들 우수수 떨어진다. 떨어진 칼 하나를 주워드는 숙희, 히데코와 나란히 책들을 자르고 도려내고 파괴하기 시작한다. 여기저기 흩뿌려지는 책장들. 동양과 서양의 책들, 글씨가 써진 페이지, 그림이 그려진 페이지들이 바닥에 떨어져 쌓인다. 쇠자를 휘둘러 뱀다귀리를 박살내는 숙희. 히데코, 마침내 비워진 책장 하나를 바닥에 쓰러뜨린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러운 울음을 터뜨린다. 다가와 끌어안는 숙희.

숙희

불쌍한 우리 아가씨!

- 정신병원. 간호사들 손에 끌려가면서 몸부림치는 숙희.

숙희

이런 망할! 이런 더러운...! 으아 -!

백작 곁에 선 히데코를 돌아보는, 핏발 선 숙희의 눈. 히데코, 겁먹은 눈망울에 그렇그럼 맏힌 이슬.

숙희

아가씨!

- 서재. 소리 죽여 우는 히데코를 끌어안고 눈물 글썽이는 숙희.

숙희

불쌍한 우리 아가씨...

- 정신병원. 발버둥치며 멀어지는 숙희를 바라보며 눈물 글썽이는 히데코.

히데코

불쌍한 우리 아가씨...완전히 돌아버리셨어요...

히데코의 완벽한 연기에 감탄하듯 그녀를 바라보는 백작.

- 화면 넓어지면, 창으로 환한 달빛 비쳐드는 서재. 멍멍머멍 머리가 빠진 듯 송송 구멍 뚫린 책장들. 찢긴 책들이 전쟁터의 시체처럼 텅구는 바닥에 앉아 서로 부둥켜안고 우는 숙희와 히데코.

히데코

(소리)

도둑, 소매치기, 사기꾼.... 멀리서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세주...
남숙희...내 동무.

- 숙희 끌려가고 고요해진 병원 정원, 백작과 히데코만 남았다. 잠시 어색한 침묵 후 돌아보는 히데코, 담담하게 -

히데코

배고파요.

빠르게 페이드아웃해서 검어진 화면에 자막 - '第三部 : 모두의 이야기'.

121. [평화호텔] 양식당 (저녁)

품위 있는 프랑스풍 식당. 양갈비의 마지막 한 점을 입에 넣는 히데코, 우아하게 씹으면서 백작의 회고를 듣는다.

백작

...첫 달엔 몸에 딱 붙는 헤링본 양복을 맞춰 입었죠.
다음 달엔 그걸 입고 [제국호텔] 양식당에 갔고요.
식민지에서 온 불행한 소년이, 단지 품위 있는 한 끼 식사를 위해
술집급사 월급을 몽땅 털어넣으려고 하는 걸 재미있어한 영국인들이 있었죠.
그 양반들이 날 '백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에 걸맞는 매너를 가르쳐줬구요.
사실 난 돈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탐하는 건, 뭐랄까....가격을 보지 않고 포도주를 주문하는 태도?
뭐, 그 비슷한 어떤 거예요.

디저트가 도착한다. 웨이터가 작고 화려한 접시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사라지기를 기다려 히데코 앞에 사진 문치를 놓는 백작. 한 장씩 넘겨보는 히데코. 전원을 배경으로 선 아름다운 양식 저택과 그 내부가 보인다.

백작

진짜 러시아 귀족의 여름별장이에요, 가구도 다 팔려있어요.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양탄자하고요.
(히데코가 사진들을 다 보기를 기다렸다가, 대수롭지 않은 일을 언급하듯)
....결혼할까요, 여기서?

히데코

했잖아요.

백작

얼마 안 있으면 병원에서 연락이 와요.
내 아내, 후지와라 히데코가 죽었다고.

히데코

아하- 그냥 가뉘달라고만 했던 게 아닌가 보죠?

백작
뭐....그런 데서 오래 살면 뭐하겠습니까.

눈을 떨구는 히데코, 디저트로 나온 타르트 위에 얹힌 산딸기를 손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며-

히데코
나쁜 새끼....

백작
제가 나쁜 새끼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동업자 양반?
(테이블에 여권을 내려놓자 집어드는 히데코, 숙희 이름과 자기 사진을 들여다본다)
아가씨는 이제 도둑의 딸, 남숙희....우리가 숙희를 새로 태어나게 했어요.

히데코
기쁘네요.

백작
저와 다시 결혼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남숙희'로서.

히데코
왜요?

백작
저한테,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어려운 노릇은 없습니다...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백작의 감정 충만한 눈과 취약한 표정을 바라보는 히데코, 서서히 그의 진짜 감정을 깨닫는다)
아가씨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꾸준히 함께 있고 싶어요
(놀라 입이 조금 벌어지는 히데코, 이상한 동물을 바라보듯 낮은 눈으로 백작을 본다)
....어때요, 믿어지시나요?

122. 정신병원 식당 (저녁)

거친 감으로 지은 혈령한 환자복을 걸친 숙희, 스무 명쯤 되는 여환자들과 줄을 지어 배식을 받는다. 모두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깎았고, 양 발목에는 족쇄를 찼다. 주먹밥 두 개와 희멀건 미소국을 받아들고 자리로 가는 숙희. 흰 벽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맛있는 밥을 억지로 입에 넣고 기계적으로 씹는다. 맛이 이상한지 내려다보는 숙희, 한 입 베어 문 주먹밥 중심에 바퀴벌레 몸통이 반 토막 들었다. 잠깐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호탕하게 깔깔 웃는 숙희, 이 장소에 아주 어울려 보인다.

123. [평화호텔] 양식당 (저녁)

히데코, 아름답게 미소 짓는다. 미소의 의미를 오해한 백작, 마주 웃으며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인다.

히데코
우리 숙희, 혼자 집 떠나 그런 데서....참 불쌍하다...

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 있나요?

백작

아니요, 하나도 안 불쌍한데요? 저희 동네에선 순진한 건 불법이거든요.

히데코

동업자를 사랑하는 건 순진한 게 아닌가요, 그 동네서?

백작

물론 순진한 거죠....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내가 아가씨 사랑하다가 무슨 비참한 꼴을 당한대도
날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백작, 히데코에게 바로 가지 않도록 턱을 약간 들고 위를 향해 담배연기를 뿜는 매너를 잊지 않는다.

124. 정신병원 식당 (저녁)

뿌연 연기가 낀다. 간호사들이 두리번거리고, 환자들은 저희끼리 웅성거린다. 간호사 하나가 출입구 문틈으로 연기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달려가 열어젖힌다. 기다렸다는 듯이 시커먼 연기가 구름처럼 밀려든다.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 비명 지르는 미친 여자. 어디선가 싸이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 온통 난장판이다. 주방으로 통하는 다른 문을 열고 사람 셋이 들이닥친다. 양동이를 들고 방독면을 쓴 한 남자 의사와 두 여간호사, 환자들에게 외친다.

방독면 의사

이쪽으로!

환자들이 족쇄를 찢렁이며 주방 쪽으로 몰려드는 사이 방독면 쓴 사람들은 숙희에게 가서, 준비해온 방독면을 씌운다. 기다리고 있었던 듯 차분한 숙희의 어깨에, 잘게 쪼개 대나무를 도롱이 모양으로 엮은 일종의 방화복을 걸쳐준다. 자기들도 일제히 방화복을 입은 다음, 양동이에 든 물을 서로의 몸에 부어준다. 그동안 숙희는 나비모양 머리핀을 뽑아 족쇄의 자물쇠를 금방 열어버린다. 빈 옷소매를 펄럭이는 여간호사가 손짓하자 일행, 연기 몰려드는 출입구로 나간다. 연기가 네 사람의 뒷모습을 삼킨다.

125. 도시의 료칸 화장실 (밤)

잔 두 개에 와인을 따르는 히데코, 백작이 준 작은 약병을 꺼낸다. 스포이트로 한 방울, 와인에 떨어뜨린다. 뚜껑 닫으려다 맘이 바뀌어, 병째로 와인 잔에 털어 넣으려고 기울인다. 또 동작 멈추는 히데코, 주저한다. 고민에 빠진다.

126. 객실 (밤 - 새벽)

침상에 나란히 놓인 여권, 배표, 기차표, 각종 서류. 셔츠 윗단추를 느슨하게 풀고 소매를 걷은 채 분주하게 짐 싸는 백작, 미달이문 두드리는 소리에 돌아본다. 유카타 차림의 히데코가 문을 연다, 와인 잔 두 개를 들었다. 놀란 얼굴로 벌떡 일어서는 백작, 잔을 받아든다.

히데코

당신이 나를 원해주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새로 태어나게 됐어요.
(백작에게 가까이 다가와 잔을 들면서)
그것에 감사해요.
(건배하는 두 사람)
입맞춤을 허락하겠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와인잔을 든 채 히데코를 바라보는 백작. 다시 확인하는 히데코)
....그것만이에요.

물끄러미 히데코를 바라보던 백작, 와인잔을 탁자에 내려놓는다.

백작
싫은데요.

히데코
(당황한 마음을 감추며)
왜요?

백작
(가까이 다가가며)
조건 붙은 키스는 싫거든요...중간에 멈추는 법을 통 못 배워서요.
(너무 가까워져서 당장이라도 키스할 것 같다. 히데코 입술에 손가락을 대는 백작)
이건 여기서 시작해서 배꼽 아래까지 파고들 거예요, 뜨겁게.

히데코
(두려운 듯 와인 한 모금 마시고)
해주세요.

백작
(히데코 눈을 들여다보더니 한 걸음 물러서며)
이상한데요, 눈빛이...할퀴고 싶어하는 고양이 같아요.

히데코
난 차갑게 길러졌어요...이러는 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알고 싶어요, 그...뜨겁게 파고든다는 것.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조용히 다가서서 입술을 포개는 백작, 그렇게 오래 머문다. 눈을 감고 느끼는 히데코, 작게 한 숨 쉰다. 백작, 히데코를 살펴본다. 조용히 눈을 뜨는 히데코, 뜨거운 눈빛을 연기한다. 남은 와인을 단번에 마셔 버리는 히데코. 그러나 백작은 와인 생각이 없다. 백작, 히데코의 목부터 어깨까지 쓸어내리며 입맞춤한다.

백작
가르쳐주고 싶은 게 아주 많아요...다 가르쳐줄게요.
아가씨를 다른 여자로 만들 거예요....

히데코, 묶은 머리를 풀며 백작의 목을 감싸 안는다. 관자놀이, 이마, 입술, 어깨, 가슴, 배꼽....옷을 벗겨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곳을 어루만지고 키스하는 백작.

히데코

(소리)

부드럽게 살짝 깨무는 아인바이센...

여운 있는 한숨소리와 축축한 물기를 동반한 슈마첸...

쪽 소리가 나는 클라첸...

다른 모든 입맞춤과 구별되는 첫번째 입맞춤...

요구에 맞추어 유연하게 몸을 트는 여자, 온몸을 구석구석 탐하다 여자의 입술을 찾는 남자. 백작의 잔을 가져다가 마시는 히데코, 와인을 입에 머금고 키스한다. 자기 입으로 와인이 옮겨지자 쿡 웃는 백작. 또 한 모금, 또 한 모금 시도하는 히데코. 잔이 다 비워지도록.

히데코

(소리)

당신의 심장을 부숴뜨릴 입맞춤...

...우리는 그것들을 합쳐 길고 높은 소리를 내는 슈마츨라인을 만들 수 있다.

시인은 그것을 플레스모르시운쿨라스, 곧 부드럽고 사랑스런 깨물음이라고 한다.

바닥에 뒹구는 종이에 싸인 새 구두, 책, 옷, 작은 물건들. 그 사이에서 해엄치듯 뒹굴면서 계속되는 입맞춤. 황홀경으로 빠져드는 백작, 바지를 벗더니 히데코의 가랑이를 벌리려든다. 작게 비명 지르더니 허둥거리며 저항하는 히데코. 완력을 써 히데코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백작.

백작

이건 아가씨를 해치지 않아요...조금만 참아보세요, 책에서 많이 봤잖아요

여자들은 사실, 억지로 하는 관계에서 최고의 쾌락을 맛보는 거예요

힘으로 히데코의 속옷을 찢어 던져버리는 백작. 저항하던 히데코, 갑자기 눈을 뜨고 백작의 어깨너머로 벽시계를 본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게 느려지기 시작하는 백작의 동작. 잠시 후 손놀림이 멎고 고개가 푹 떨어진다. 힘겹게 백작을 밀어내고 일어서는 히데코, 내려다본다. 허반신만 벗은 불쌍사나운 물골로 엎드린 백작. 휘청거리며 걷는 히데코, 백작이 벗어놓은 양복저고리에서 여권을 꺼낸다. 옷장에서 백작의 검색양복과 셔츠와 중절모를 챙기는 히데코, 마지막으로 침대 곁에 놓인 보스턴백까지 들고 나간다. 잠시 후, 불이 꺼진다.

시간을 빨리 돌리듯 화면이 서서히 밝아져 동틀녘이 된다. 바닥에 고개 박고 자던 백작, 눈 뜬다. 침을 닦으며 고개를 든다. 자기 앞에 정좌한 검은 기모노 차림의 두 사내를 발견한다. 옆에 놓아둔 긴 일본도. 백작, 이제야 사태를 파악했는지 깔깔깔 웃는다. 두 사내도 웃는다. 백작, 주변을 둘러보더니 간밤에 벗어던졌던 바지를 가리키며 -

백작

저것 좀 집어주시겠습니까?

127. 관부연락선 선실 (이침)

동그란 현창 너머로, 출렁이는 물결이 보인다. 정장 차림으로 앉은 백작, 양손과 양발이 각각 밧줄로 묶였다. 좌우로 검은 기모노 차림의 사내들 앉았다. 백작, 양복 안주머니에서 은제 담배케이스를 꺼낸다. 열어본다. 파란 종이

로 말아놓은 담배 두 개비, 흰 종이 담배 세 개비가 남았다. 흰 담배 세 개비를 한꺼번에 물고 불을 붙이는 백작. 검은 기모노 사내들, 어이가 없어 마주본다. 굴뚝처럼 연기를 뿜어내는 백작.

히데코

(소리)

제 선물은 잘 받으셨나요?

이모부께서, 그 사람이 조선의 머슴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서....

128. 미술관 (낮)

인상파 아류작들이 걸린 실내, 한산하다. 고운 한복을 입고 유부녀답게 쪽진 머리까지 한 히데코가, 보스턴백을 들고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며 두리번거린다. 문 열린다. 복순과 끝단리와 조가이가 기모노 입은 숙희를 호위하듯 에워싸고 들어온다. 야쿠자 여두목처럼 당당한 숙희에게 주저 없이 달려가 안기는 히데코. 여자끼리의 키스를 구경하는 게 머쓱한지 괜히 관심도 없는 그림들을 감상하는 척하는 [보영당] 식구들. 히데코, 숙희의 짧은 머리를 연신 쓰다듬는다. 겨우 몸을 뚫 숙희가 서로 소개를 해준다. 품위 있게 인사하는 히데코. 한 사람 한 사람과 인사할 때마다 보스턴백에서 지폐다발을 꺼내 나눠주는 숙희. 만족한 듯 고개 끄덕이는 [보영당] 식구들.

히데코

(소리)

...대하는 태도를 바꾸실 분이 아니란 것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선말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두 분 사이를 더욱 격의 없게 만드는 기쁜 소식이지 않을까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그 남자에게 제 말을 전해주세요.

129. 코우즈키 저택 지하실 (낮)

코우즈키

미안하지만 현실세계엔, '억지로 하는 관계에서 쾌락을 느끼는' 여자는 없다고.

그리고 숙희를 보내줌으로써, 이 '죽은 혼'을 살려줘서 고맙다고.

이모부의 '잔인하게 아름다운' 처조카 히데코 올림.

다 읽은 편지를 책상에 내려놓는 코우즈키. 책상 끝에는 종이 자르는 작두가 달렸고 판 위에 백작의 왼손 새끼손가락이 놓였다. 팬티만 입은 백작, 딱딱한 의자에 사지가 묶인 채 앉았다. 그 곁의 의자에 앉은 코우즈키.

코우즈키

내가 제일 아끼는...아니, 아꼈던...책 다섯 권만 골라보세...가만 있자....

우선...[철리에트, 또는 채찍의 승리].

(작두 손잡이를 짹 누르는 코우즈키. 우지끈 소리. 이를 악무는 백작.

약지를 노리며 허공에 올라가는 작두날)

....[도마뱀가죽].

(우지끈 약지 잘리는 소리, 백작 비명)

....[백합골짜기].

(우지끈 중지 잘리는 소리, 백작 비명)

....[타락한 속옷 판매인들].

(우지끈 검지 잘리는 소리, 백작 비명)
....[장의사의 침실].

우지끈, 비명. 엄지까지 잘리고, 숨을 헐떡이며 축 늘어진 백작. 이마의 땀을 훔치는 코우즈키, 나무자로 밀어 다섯 개 손가락을 양동이에 떨군다.

코우즈키

쫄쫄, 그 어린 년한테 당하다니...걱정 마, 곧 잡아줄 테니까.
그 년 가족으로 장정을 해서 너희 둘을 책상에 나란히 꽂아줄게.
(나사를 돌려 종이더미에 구멍 뚫는 기구를 꺼내오며)
젊은 여자 둘이신 절대 고베를 떠날 수 없도록 해뒀거든.

오른손을 기구 가운데 끼워 고정시키고 손잡이를 돌려 나사를 내리기 시작한다. 공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백작.

130. 항만 매표소 (낮)

백작의 검색양복을 고쳐 입은 숙희, 중절모도 쓰고 잘 손질된 수염까지 붙였다. 히데코와 팔짱 끼고 의젓하게 창구로 걸어온다. 긴 칼을 찬 낭인들이 둘씩 짝을 지어 돌아다니며, 날카로운 눈으로 사람들을 살피다가 젊은 여자 둘이면 무조건 붙잡고 여권을 확인한다. 숙희가 매표직원에게 표를 내민다.

숙희

바꿔주세요, 상해 행으로요

직원

(확인하라는 뜻으로)

블라디보스토크 두 장을 상해 두 장으로 바꾸십시오.

(고개 끄덕이는 숙희)

여권 주세요

(두 개의 여권을 내미는 숙희. 직원, 확인하느라 고개 빼고)

남숙희님?

(저도 모르게 반응하는 숙희, 다행히 뒤에서 히데코가 얼른 손을 들고 나선다.

직원, 히데코의 얼굴 확인하더니 다음 여권을 펼쳐들고 숙희에게)

김판돌님?

(고개 끄덕이는 숙희를 흘끗 보더니 얼굴 찌푸리며 생각하는 직원.

긴장하는 숙희와 히데코)

....3엔 더 내셔야합니다.

여권 돌려받는 숙희. 백작이라고도 불리우는 김판돌씨의 증명사진을 본다. 지금보다 더 젊고 순진해 보인다.

131. 코우즈키 저택 지하실 (낮)

온 몸이 땀투성이가 된 백작, 낮은 신음 소리에 숨을 헐떡인다. 코우즈키조차 땀을 흘리며 담뱃대에 불을 붙인다.

코우즈키

히데코는 내가 따먹지 않고 가지에 둔 복숭아야, 맛이 어떨지 상상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그걸 따먹었겠나?

(길게 연기를 내뿜는다. 부럽다는 듯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백작)

아니지....난 고작, 더러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노인일 뿐.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상상은 저마다 다르지 않나.

그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게 이 늙은이의 조출한 오락이었는데....

이제 다 끝나버렸으니 자네가 말해줘야지.

(선반 위 - 절단된 남녀 성기가 담긴 알코올 병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백작,

제게 닥칠 일을 능히 짐작한다)

그래...히데코, 그 년 맛이 어땠던가? 어때, 잘 익었던가? 말해봐.

백작

....나도 한 대 피우고 싶군요....

코우즈키

아, 이런! 내가 무례했구먼.

(다른 담뱃대를 찾아 담배를 채우려하자 지긋이 눈 감고 고개 젓는 백작)

참, 켈런에 대한 갈증은 취미가 있었지.

백작의 재킷 주머니를 뒤져 은제 케이스를 꺼내더니 오른손 결박을 풀고 쥐어준다. 가운데 구멍이 뚫린 피투성이 손으로 받아드는 백작, 코우즈키의 눈치를 살핀다. 담배케이스에 감추어둔 비늘-칼을 가까스로 뽑으려는 찰나 채찍이 날아든다. 비명 지르면서 담배케이스를 놓치는 백작.

코우즈키

요-세! 좋아, 이런 근성!

(웃으며 담배케이스를 주워 여는 코우즈키, 파란 담배 두 개비만 남았다.

하나를 입에 물리고 불까지 붙여주며)

자...이제 말해봐.

눈을 감고 담배를 깊이 빠는 백작, 손가락 한 마디만큼이나 티들어간다. 초조한 듯 연기를 뿜는 동시에 또 빨아들인다. 뼈끔뼈끔 연거푸 세 번 하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퍼지는 연기를 따라 주위를 둘러보다가 -

백작

창이 없네요?

132. 산중의 료칸 객실 (밤) - 백작의 회상

촛불이 켜진 방안. 이부자리에 마주 앉은 백작과 히데코. 백작, 히데코의 허리띠를 풀며 속삭인다.

백작

숙희가 엇들을 수 있잖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촛불을 후- 불어 끄는 히데코. 뭘 하려나 지켜보는 백작. 히데코, 옷을 스르륵 벗는다. 침을 꿀꺽 삼키는 백작. 완전히 니체가 되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히데코, 백작의 목을 안아 이불 속으로 이끈다.

133. 코우즈키 저택 지하실 (낮)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기다리며 조바심 내는 코우즈키.

코우즈키
....그래서?

그렇게만 해놓고 담배 한 모금. 굴뚝처럼 연기를 뿜고 입 다무는 백작, 눈까지 감는다. 기가 막히는 코우즈키.

코우즈키
뭐야... 말을 하다 말면 어떻게 해, 이 사람아...
그래서... 어디부터 손대기 시작했나?
얼굴? 젖가슴? 아니면 곧바로 그 곳?
부드럽던가, 조여오던가? 주름이 많이 잡혔던가? 충분히 젖었던가? 애액의 점도는?

마지막까지 악착같이 피운 백작, 콩초를 버린다. 백작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연기가 맵다는 듯 눈을 비비는 코우즈키, 자기 담뱃대를 한 모금 빨더니 기침한다. 혀가 마비되기 시작한 백작, 또박또박 말하려고 노력한다.

백작
그럼...한 대 더 부탁드립니다.

134. 산중의 료칸 객실 (밤) - 백작의 회상

씬132 연결. 감격한 백작이 얼굴에 부드럽게 손을 대자 탁 쳐서 치우는 히데코. 당황하는 백작. 히데코, 스스로 몸을 어루만지기 시작한다. 눈 감고 자기 손길을 느낀다. 꼼짝없이 바라보는 백작. 점점 가빠지는 숨소리. 백작의 코밑에서 과장되게 움직이는 히데코의 몸. 귓가에 울리는 신음, 그녀는 절정에 도달하고 있다. 흥분과 당혹감이 뒤섞인 백작의 얼굴. 히데코, 감았던 눈을 뜨더니 백작을 본다. 이불을 확 치우더니 일어나 앉는다. 숙희의 은장도를 꺼내 손에 꼭 쥐더니 손바닥을 그으며 빼내는 히데코. 일그러지는 백작의 얼굴. 하얀 요에 빨간 피를 확 뿌리는 히데코. 얼떨떨한 채 구경하는 백작. 의기양양한 눈빛으로 백작을 바라보는 히데코의 일그러진 미소. 매혹된 백작.

백작
(소리)
그렇게 아가씨는 아내가 되었죠...새침한가 하면, 한순간 그토록 대답해지.

135. 코우즈키 저택 지하실 (낮)

지그시 눈 감은 백작, 생각만 해도 좋은지 빙그레 웃기까지 한다. 그러면서도 또 담배 한 모금.

코우즈키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새침하고 뭐가 그렇게 대답했는지, 방불하게 말해보라니까?
이야기는 과정이 생명이잖나, 알 만한 사람이 왜 이래!

136. 여객선 갑판 (저녁)

나란히 선 히데코와 숙희, 뒤에서 보면 영락없이 한 쌍의 연인이다. 러시아 별장의 사진들을 보는 숙희.

숙희
아깝다....

사진을 빼앗아 한 장 한 장 던져버리는 히데코. 팔랑팔랑 날아가 바다에 떨어지는 사진들을 아쉬워하며 바라보는 숙희. 사진을 다 던지자 장갑마저 벗어서 바닷바람에 실어 날려버리는 히데코. 하늘하늘 날아가는 장갑을 조금 쓸쓸한 눈으로 좇는 히데코, 손에 낀 금반지마저 빼서 던져버리려는데 - 붙잡는 숙희.

숙희
결혼반지?
(히데코가 끄덕이자 반지를 빼앗아 깨물어보는 숙희)
이상하네....그 건달이 진짜를 줬을 리가 없는데....?

137. 코우즈키 저택 지하실 (저녁)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이야기를 기다리는 코우즈키의 애타는 표정. 조용히 담배연기를 뿜는 백작, 한참 뜸들이다 -

백작
....히데코는 내 진짜 아내예요.
아내하고의 초야에 대해 떠벌이는 일간이가 어땠습니까?

분노로 하얗게 질린 코우즈키, 끄- 무릎을 꿇고 일어서더니 무어라 중얼중얼하며 연장들이 수납된 벽으로 간다. 펜치 하나와 녹이 슨 커다란 가위를 고른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백작, 올 것이 왔다는 눈빛. 백작 앞에 작은 삼발이 의자를 놓고 마주 앉는 코우즈키, 백작의 오른손을 도로 의자에 결박한다. 펜치로 백작의 팬티를 잡는 코우즈키. 흠칫 긴장하지만 내색하지 않는 백작. 가위로 팬티를 싹둑 자르는 코우즈키, 눈을 크게 뜨려고 노력하며 백작의 아랫도리를 뻗히 바라본다. 눈 깜빡깜빡하면서 고개를 들어 연기 자욱한 실내를 돌아보더니 뭉개진 발음으로 -

코우즈키
....그런데 자네 연기는, 이상하게 차갑고 푸른 것 같아.

푸르게 떠도는 담배연기를 바라보는 두 사람. 어눌한 발음으로 천천히 말하는 백작, 근육이 멧대로 떨린다.

백작
미법이 아니라 화학이죠....
(무슨 소리가 하고 가우뚱하면서 백작을 보는 코우즈키)
기화된 수은이 독성이 제일 세요, 아마 한 대로도 충분했을 거예요.
그래도 자지는 지키고 죽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기분 좋게 미소 짓는 백작, 눈을 감고 숨을 헛껏 들이마시고)
....참 향기롭지 않아요?

138. 정원 (낮)

화구 일습을 이고지고 걷는 숙희. 앞에는, 히데코의 머리가 제 얼굴 밑에 오도록 몸을 붙이며 걷는 백작.

백작

(눈을 감고 음미하며, 보일 듯 말 듯 미소)
아가씨 머리에선 갓 떨어놓은 풀 향기가 나네요.

콧방귀도 안 꺾는 히데코. 백작, 뭔가 생각났다는 듯 돌아본다.

백작

요시코, 수채화물감 가져왔지?

숙희

그럼요, 나리!

백작

유화물감으로 바꿔다줄래?
모처럼 맑은 날인데, 유화를 그려야지!

백작, 손으로 차양을 만들고 맑은 하늘을 본다. 싱그런 바람이 머리칼을 살살 날린다.

139. 코우즈키 저택 지하실 (저녁)

백작의 고개가 툭 떨어진다.

히데코

(소리)

아가씨가 숨을 깊게 쉬고 침을 삼키는가?
(숙희의 행복한 숨소리)

귀에 달콤한 말들을 속삭이며 입맞춤하는가?

코우즈키, 망연한 표정으로 방안의 푸른 연기를 바라보다가 일어나려 하지만 다리가 푹 꺾인다. 숙희의 짧은 신음 소리. 옆드린 코우즈키, 바닥에 떨어진 백작의 꿈초를 발견하고 चु는다. 종이를 뜯자 연초 사이사이에 점점이 박힌 은색 수은 알들. 히데코와 숙희가, 몸이 달아올라 내는 교성.

140. 여객선 일등선실 (밤)

곱게 놓인 작은 은구슬들 너머 보이는 히데코와 숙희. 반쯤 옷을 벗은 채 서로의 몸을 어루만진다.

히데코

(책 읽는 소리)

너를 꼭 껴안고 젖꼭지를 만지작거리는가?

